

제2560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은성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불가피” 9



고인수 “이재용 실형, 韓경제에도 위기” 12



코스피(19일) ▲ 3092.66 (+78.73P)
코스닥 ▲ 957.75 (+13.08P)
환율(달러당 원화) ▼ 1102.90 (-1.00원)
금리(국고채 3년물) ▲ 0.974% (+0.006%p)

반도체 ‘공급 대란’ 세계 물량 확보 전쟁

車·모바일·드라이버IC 등 품귀
위축됐던 수요 늘어 ‘비상 경영’
폭스바겐·토요타 등 감산 돌입
‘공급과잉 우려’ 업계 투자 신중

산업계 곳곳에서 반도체 공급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부터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칩인 ‘드라이버 IC’ 등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져 글로벌 제조사들이 물량 확보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19일 전자·차 업계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는 컴퓨터 칩 공급 부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지연되며, 종업원 1만 명을 임시 해고했다. 폭스바겐에 이어 일본의 토요타자동차, 혼다, 닛산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감산에 돌입했다.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PCA)은 일부 라인 가동을 멈췄다.

완성차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자 브레이크와 핸들링, 유리창 조정, 거리 센서 등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 칩 주문을 줄였다.

반면, 최근 3개월간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분기 주문량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 처했다.

모바일 반도체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2100’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요구한 만큼 생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한정된 5나노 공정에 대형 고객 주문이 밀리면서 물량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칩인 ‘드라이버 IC’도 공급난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패널 업체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형 TV 패널과 모니터 패널을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캐파(capex·생산능력)만큼 풀가동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쇼티지(shortage·부족)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선불리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늘어난 반도체 수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라인 1개 증설에는 약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일시적 수요 증가인지, 지속적 증가인지 시장과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다 적기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실기하게 된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0월 11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대선 유세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트럼프는 헌법에 명문화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에 따라 후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현지시간) 정오에 임기를 끝마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도 이때 시작된다. ▶관련기사 4·8면

박영선 사의...곧 4~5개 부처 개각

서울시장 출마 위해 오늘까지 장관직
與 경선, 우상호와 양자구도 압축
중기부 장관 후임 강성천 차관 유력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박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20일까지만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접수기간을 27~29일로 정하는 등 일정 확정에 돌입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출마)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주민 의원도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우 의원의 지지율 차이는 2배 이상으로 크다. 5일 발표된 원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 결과 범여권 후보 중 서울시장 적합도는 박 장관이 18.5%로 1위였다. 우 의원은 8.5%로 박주민 의원(9.6%)에게도 뒤진 3위였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3%가 ‘없을-잘 모름’이라고 답한 만큼 대세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이후 여론에선 박 장관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두 차례도

이러는 후문도 있다. 박 장관은 이르면 20일 사의를 표명하고, 맞물려 진행될 개각에 맞춰 직을 내려놓은 뒤 경선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에서는 박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김상헌 전 네이비 대표이사 등도 유력한 중기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당분간 강 차관이 이끄는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대원 기자 leedw@

‘정인이 비극 없게’ 피해아동 즉각 분리

현장대응 인력 민·형사 책임 면제
조사거부 부모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 체계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5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초기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간을 160시간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순환보직 방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신설돼 13세 미만 사건을 전담수사하게 된다. 신고 접수율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특히 현장대응 이행력을 높이고자 출입 범위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로 확대한다. 조사 거부 시엔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즉각 분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인력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부모·아동 분리는 민법상 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분리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한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 피해 아동의 심리 안정·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양절차를 공적 책임 강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입양실무직을 개정한다.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전위탁 제도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대한 보완 설명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활동 종료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1년 2개월 수사결과가 대부분 ‘확인 안됐다, 찾지 못했다’...유족 “분통”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9면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유가족, 가슴기살 군계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17개 의혹 대부분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조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도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검찰에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머지 13건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경원이 사찰했다며 유

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고(故)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방기 의혹은 당시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지시·승인에 따라 피해자가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임 군이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발견 당시 해경 문자대화방(코스넷), 3009함 항박일지 등에서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어떻게 이런 부실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허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기영 기자 pgy@

청년 43% '경제활력' 바라는데... 입법은 '나쁜질'

상의 '21대 국회 입법방향'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최우선 입법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이지만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 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 (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 (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 (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그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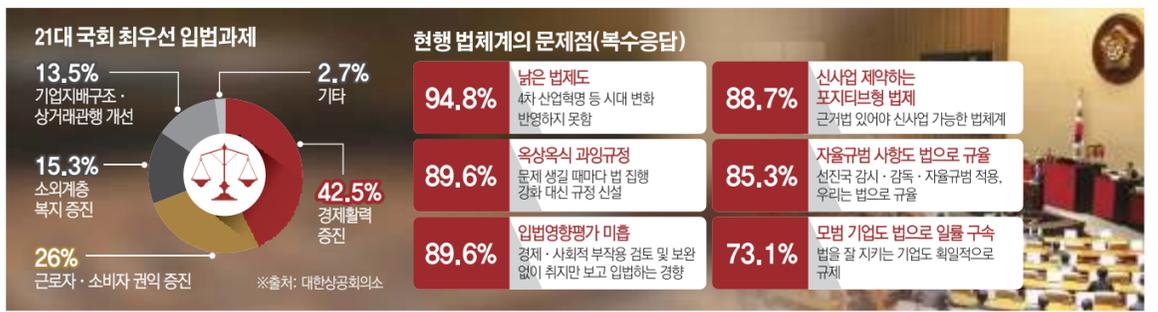
신사업 혁신 법안 처리 지연 불구 의결권 제한 등 규제안 다수 통과 10명 중 9명 "현행 법체계 낡아"

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 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미래 세대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94.8%가 '낡았다'라고 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89.6%의 응답자가 '육상육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꼽았다.

미래 세대의 88.7%는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 (근거법이 있어야 신사업 가능한 법체계)라고도 응답했



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 (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 (73.1%) 등도 문제라고 답했다.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 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 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 세대는 문제 해법으로 '기준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 입법 논의' (53.2%)를 '신규 입법으로 문제 해결' (46.8%)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작년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 강화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

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신설·강화 필요' 응답은 19.3%에 머물렀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이 같은 인식,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 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 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뤄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WHO "부국의 백신 사재기, 도덕적 실패"

"부자나라 3900만회분 접종할 때 최빈국은 고작 25회분만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부유한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재기에 대해 도덕적 실패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사진) WHO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제148회 WHO 이사회에서 "부유한 49개국은 지금까지 백신 3900만 회분을 접종했지만, 최빈국 중 한 곳은 250만 회분도, 2만 5000회분도 아닌 단지 25회분만 받았다"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백신 제약사와 부유한 국가 간



격차가 지난해에는 44건, 올해 들어서는 최소 12건 체결됐다"며 "대부분 제조사가 부자 나라 규제 당국의 승인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있어서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다"면서 "공평한 접근에 대한 약속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이 실패의 대가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런 조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봉쇄 조치, 경제적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

산으로 백신의 공정한 분배가 더 중요해졌다"면서 "부유한 나라의 젊고 건강한 성인 이 의료진이나 가난한 나라의 노인보다 먼저 접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백신을 제조한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조사가 WHO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자 나라에서 승인 받는 것을 우선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달 출범하는 코백스(COVAX) 이행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이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배분 프로젝트다. 한국 등 전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2개 저소득 국가 백신은 후원국이나 단체 후원금으로 백신 비용을 부담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주호영 "文대통령, 사면 대상 될 수도"

與 "헌정질서 어지럽히는 망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협박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이 된다"며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 상황도 있을지 모른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민통합을 해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여론을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사면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 어떻게 통합을 해친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협박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주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망언으로 또다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美 규제로 삼성 타격? '모바일 AP' 없어서 못 판다

스마트폰·IT·가전라인 '비상'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급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가전기기 전반의 반도체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샤오미에도 제재를 가한 와중에도 모바일 반도체 수급은 품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 회사를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되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했다.

화웨이에 이어 샤오미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당장 샤오미에 모바일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는 약재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비보에 이어 샤오미에도 모바일 AP 엑시노스를 공급한 바 있다.

차량용에 이어 모바일 반도체까지 공급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삼성전자가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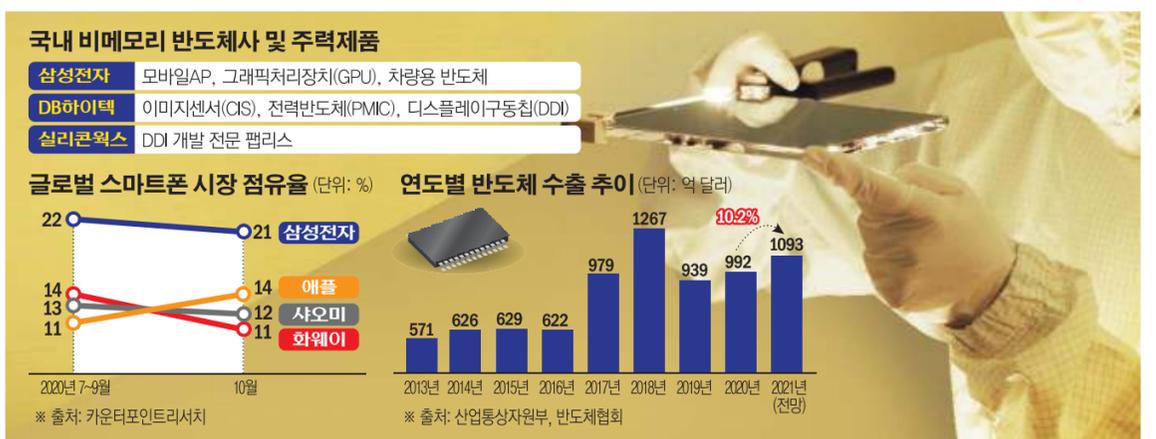
당장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무선사업부가 요구하는 모바일 AP 물량 공급에도 힘이 벅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에 5nm

화웨이·샤오미 공급중지 악재에도 코로나 비대면·5G 시장확대 영향 삼성 '엑시노스 칩' 물량생산 비저담 D램값 상승하며 점유율 확보경쟁

(나노미터=1억분의 1m) 공정 기반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는데, 이 물량이 부족한 것이다. 다른 대형 고객사 주문까지 밀려들면서 엑시노스 칩 생산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퀄컴이 요구한 물량도 일부 감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1075억 달러에서 1110억 달러(약 123조 원)로 지난해(992억 달러)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버, 5G(5세대 이동통신), PC·스마트폰,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세계반도체시장 통계기구(WSTS), 가트너도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8~10%, 메모리 시장은 13~2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5G 시장 확대와 비대면 경제 확산 지속 등으로 모바일(40%), 서버(35%), PC(13%)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



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서버용 D램과 PC용 D램 고정거래가격은 지난달부터 보험세를 보이며, 가격 내림세가 멈췄다. 고정가격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D램 현물가격(DDR4 8Gb 기준)도 지난해 11월 2달러대에서 지난달 3달러대로 급등했다. D램 현물가격이 3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1분기 PC와 모바일용 D램 가격

은 3%가량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AP 공급 부족 조짐에 반도체 가격 상승까지 나타나면서 당장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삼성전자는 화웨이 공백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다지며 확고한 1위 굳히기에 돌입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스마

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1%로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2위(14%)에 올랐고, 샤오미는 화웨이를 제치고 3위(12%)를 차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화웨이 반사이익 영향으로 올해 모바일을 중심으로 IT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며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은 스마트폰 확대 판매를 목표로 부품 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수요예측 실패'한 글로벌 車업계 반도체 공급 끊기며 '연쇄 섯다운'

"정상화까지 반년 소요"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수급난을 해결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중국과 미국, 멕시코에 이어 독일 공장 생산 축소를 결정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도 독일 2공장에서 생산물량 조절을 결정했다.

일본 토요타와 혼다, 미국 FCA와 포드 등 대중차 브랜드까지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생산 축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공급처와 부품 재고에 신경 쓰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공급물량 확보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됐다.

2021년 생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 물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에 빠졌던 자동차 생산이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동차 업계의 주문량이 줄자 생산설비를 게임이나 PC, 가전제품용 반도체 생산으로 돌렸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대란에 화들짝 놀란 자동차 업계가 서둘러 주문량을 늘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선주문을 받아놓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게임과 PC, 가전제품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약 120개의 반도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엔진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ECU를 시작으로 음성인식으로 차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이른바 '커맨드' 시스템에도 반도체가 필수다. 이밖에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거나,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달리는 기능에도 반도체가 필수다.

자동차 제조사는 반도체 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다국적 부품을 통해 반도체가 포함된 통합부품, 이른바 '어셈블리'를 공급받는다.

현대차그룹 역시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트론에서 일부를 충족한다. 다만 대부분 콘티넨탈과 보쉬 등 다국적 부품사에서 관련 부품을 공급 받고 있다.

부품사조차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콘티넨탈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는 반도체가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반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사는 직접 생산 이외에 수탁 생산업체(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맡기기 때문에 즉각적 증산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상대적으로 전자장비가 가득한 고급차와 친환경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자동차 판매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회복세가 빠른 만큼, (반도체 부품 부족 등)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 | | | | |
|---|---|--|--|--|
|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 KB 생명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취임 일성은 “통합”... 분열과 대립의 상처, 치유할까

바이든 정부, 혼돈 속 출발 초박빙 대선 이후 민심 두 동강 인종차별 번져 사회 분열 키워 '트럼프 지우기' 험난한 길 예고

미국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바이든호(號)' 출범을 앞두고 있다. 취임식을 겨냥한 테러 경기가 잇따르면서 수도 워싱턴D.C.는 전시상태와 다름없다. 유례없는 혼란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분열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미국을 치유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첫발을 떼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6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보여주듯 미국의 '다름'은 단순히 이견을 넘어서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팽배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취임식 주제도

“하나 된 미국”이다. 인종과 당파로 찢긴 미국 사회 치유를 역설한 것이다.

두 동강 난 미국 사회는 대선 결과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바이든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초박빙 끝에 신승을 거둔 곳이 적지 않다.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도 7000만 명을 넘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이자 가장 많은 표를 얻고 패배한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을 반대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지우기'를 예고, 이민·복지·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대대적 변화를 강조했지만 상황을 풀어가긴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제 미국 민심은 각종 정책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와 달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우려가 과장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100일 내 하루 100만 명씩 총 1억 명의 백신 접종을 자신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종차별도 미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상·하원 합동 회의 최종 인준을 막기 위해 의회의사당으로 몰려 들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다. 지난해 7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이후 시위 과정에서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자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극단주의자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집단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브라이언 레빈 캘리포니아대학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 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정부 권한의 비

대함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분된 미국 사회는 바이든의 정책 추진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시사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트립플 블루'를 달성했지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법안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나뉘어졌다. 역사적으로 세 번밖에 없는 이례적 구도다.

3수 끝에 백악관에 입성하는 바이든은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를 꺼안으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전술이 필요하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팩트(사실)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영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미국 최초 원주민 출신 댄 할랜드(왼쪽) 내무장관 내정자와 첫 성 소수자 장관이 될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

내각 구성 키워드는 '다양성' '오바마'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내각 인선이 지난해 11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을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이어진 끝에 취임을 앞두고 마무리됐다. "미국처럼 보이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에서는 '다양한 최초'들의 등장과 '버락 오바마 내각 출신'의 복귀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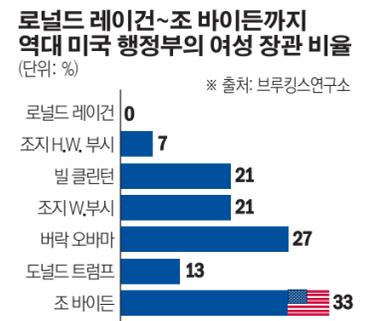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구성된 최초의 내각이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유색인종 대다수가 내각을 차지하는 최초의 내각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에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사키 바이든 인수위원회 선임고문 역시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회의) 테이블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길 원한다"

고 설명했다.

그의 공약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앞선 어떤 행정부보다 성별, 인종 다양성을 확보했다. 로널드 레이건부터 조지 부시 부자,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각은 여성 장관의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33%다. 이 중에는 제니 엘런 재무장관 내정자처럼 처음으로 여성 후보자가 지명된 사례도 있었다.

인종 다양성은 클린턴 내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비(非)백인 구성원의 비

원주민 출신·성소수자 합류 오바마 내각 인사 대거 복귀



율은 40%로 오바마 정부와 같았지만, 최초의 기록이 많았다. 최초로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했으며 최초의 라틴계 국토안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했다. 댄 할랜드 내무장관 내정자는 첫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장관이다. 인도계 여성인 나라 탄덴 지명자는 첫 유색인종 예산관리국(OMB) 국장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경쟁했던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은 교통장관에 지명되며 최초의 공개적 성 소수자 장관이 됐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열일곱 살에 클린

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성 소수자로서 상원 인준을 거부당한 뉴스를 보았다"며 "20년이 지나 어디에선가 열일곱 살짜리가 내 뉴스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내각이 인종과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일돼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내각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AAPI)는 장관 중 한 명도 없었다. AAPI는 미국 인구의 7%를 구성하고 있고 클린턴 내각부터 최소 1명의 AAPI 장관이 포함돼왔다.

최혜림 기자 rog@

재미

공감

품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챔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챔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코로나 양극화 대책 ‘사회연대기금’ 꺼낸 민주당

ESG채권 등으로 기금 마련 코로나 종식 후 영속성 의문 “농어촌상생기금과 달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선 자본주의 양극화 완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전언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제안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연대기금 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와 플랫폼기업의 수수료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기·중기·장기 대책으로 나눠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은 장기대책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기금에 투입할 재원 조달책으로는 ESG채권 발행이 고려된다. 환경·사회·지속가능성 증진사업에 한정해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지난해 상장 규모가 59조 원에 달했다.

TF에서 사회연대기금과 ESG채권 부문을 맡은 이우우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

화에서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그림은 그려졌으며 시장에 적용토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격상 단기가 아닌 중·장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ESG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재원 조달에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당시 이 의원은 “재정만으로 충당이 어려운 대규모 재원 부담을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해결하는 일을 위해 ESG채권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대상을 한국형 뉴딜에서 사회연대기금으로 설계를 바꾸는 게 이 의원이 TF에서 맡은 일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며 기금에 힘을 실은 만큼 사회연대기금은 TF 결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연대기금이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코로나19 극복 후에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쓰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얻은 제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익을 나누는 데 쓰인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본 이들이 기금을 통해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회 전

체적 후생을 증진시켜야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키우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연대기금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또한 목표보다 성과가 작기 때문이다. 2017년 설립 당시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 조성이었지만, 19일 기준 1164억 원에 그치고 기부금의 73%는 공기업에 기대고 있다. 연 조성액이 200억 원대에서 지난해 429억 원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나 갈 길이 멀다.

학계가 의문을 던지는 건 이 지점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인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몇 년이 지나서야 민간 참여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회연대기금은 단기적 이슈인 코로나19가 계기라 다른 경우로 보인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영속성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與 “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와 아동 변경을 언급해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입양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는 해명

에 진땀을 뺐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청와대에서 언급한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내세우며 행동으로 논란 무마에 나선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말씀 중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한다”며 “청와대에서도 설명한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운을 뗐다.

홍 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서만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성역 없이 수사...정치적 중립 지킬것”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해선 말 아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1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론에서 나온다”고 하자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완전히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넘겨받아 갈 것이냐”고 묻자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

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나”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SK 증권 SK 증권

membership Wealth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시럽웰스는 시럽웰스 안에서
손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멤버십입니다.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모든 서비스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 고객행복센터 상담을 받으실 때는 신분증과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내수 쓰러지고 일자리 증발... 경제회복 당분간 어렵다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

수출 5.4% '뚝'... 제조업 부진
쇼핑·외식 등 서비스업 위축에
자영업 '벼랑' 취약계층 피해 커
내달 백신 공급... 방역 판가름

주요 경제지표 증감을 추이
(단위: %) ※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386명 증가한 7만31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는 1283명으로 19명 늘었다.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간 방역 성적표다. 코로나19가 아야간 건 건강뿐 아니다. 국민은 일상을 잃고, 경제는 길을 잃었다.

◇경제 피해, 취약계층에 집중 = 지난 1년간 전 세계적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국은 록다운(봉쇄)과 섯다운(폐쇄)으로 대응했다. 이는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 관세청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5.4% 감소했다. 9월 이후 반등에도 3월부터 6개월간 워낙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국내 제조업도 급격히 위축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2분기 광공업생산은 전기보다 7.1%, 전년 동기보다 5.1% 줄었다. 지난해 1~2월 증가세로 전환됐던 제조업 취업자도 3월 이후 줄곧 감소세다.

다. 감염 불안감 확산과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일상이었던 쇼핑·외식 등 외부활동이 급격히 위축됐다. 이에 소매판매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전기 대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분기에도 거리두기 강화로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대면서비스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한 업종으로, 종사자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1만 9000명 줄었다. 특히 임시직(-31만 3000명)과 일용직(-10만 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만 500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90% 이상 설 전에 집행할 계



국내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지난해 1월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출국자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왼쪽 사진)과 올해 1월 19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뉴스

획이지만, 서민경제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대면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됐다.

◇코로나 확산 현재진행형 = 방역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방역은 세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그나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3월)과 광화문 집회발 2차 대

유행(8월)은 'K방역'으로 알려진 진단검사·역학조사 확대,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증환자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확충, 시민들의 거리두기 협조로 단기간에 통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상주 BTJ 열방센터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종교·요양시설발 집단감염이 발생했

고,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잇따랐다.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는 최근 둔화세가 뚜렷하다. 단, 다음 달부터 설 연휴와 백신 공급으로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우려가 크다.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CPTPP 가입 서둘러야... 농어업 소득보전 필요”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소득·재산 조사

KDI '바이든 시대 대응전략' 보고서... “中 대체시장 개척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고, 대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바이든의 통상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는 무역 축소 효과와 함께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해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비중 감소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부품 산업 등의 수출과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GVC의 등장은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대응은 중간재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새로운 GVC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기업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미·중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누적생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GVC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중국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공급 체인의 다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이 양질의 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소득·재산 조사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세·토지 등 파악, 징수 강화

앞으로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받아들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재정 투입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축소

“경제위기 종료 후 정상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경제 정상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된 축소 대상은 고용·내수 분야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대면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

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누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 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환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고용·산재보험료 연체 부담금 줄어든다

연체 가산금 최대 9%→5%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적용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되며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요!

우리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 서울특별시② 편 >



대치동 최고의 순대국 맛집
대치동순대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4호 서림상가 1층 | 02-552-0059



사당역의 건강한 헬빙밥상
코다리&시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62 | 02-522-6443



50년 경력의 독보적인 헤어샵
임정숙 토카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6길 12, 203호 | 02-517-2121



저렴한 가격의 건강한 먹거리
국민식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35 | 02-577-1355



신선하고 맛있는 복지리전문점
수현복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5-2 | 02-564-8989



신선하고 맛있는 수제청
셈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54 | 070-4112-1121



24시 스타디카페, 소호사무실 강의장
리얼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94지 5층 | 070-4112-4334



좋은 쌀로 만든 신선한 초밥
미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05 상가층 | 02-413-0303



조용한 스타디존과 음악이 흐르는 카페존
비온탑 스타디카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곡로 530 다온빌딩 3층 | 010-235-0953

동맹·국민 갈라놓고 떠나는 '갈등의 아이콘' 트럼프

美 우선주의로 다자주의에 균열
흑인사망 사건에 인종갈등 키워
무역적자 3조 달러...경제도 무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열과 혼돈의 불씨를 남긴 채 임기를 끝마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다자주의의 틀을 흔들고 국내에서는 인종갈등을 심화해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조 바이든 차기 정권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떠난다고 혹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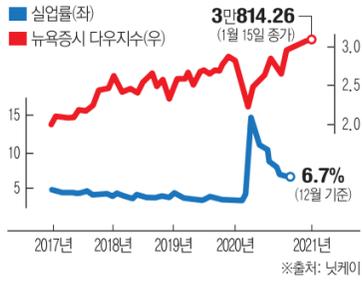
닛케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고집이 동맹국 경시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 미군 축소 의지를 내비쳤다. 독일에서는 결국 실제로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주둔비를 둘러싼 교섭을 바이든 차기 정부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거부하고, 양자 간 무역 거래를 추구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이란 핵 합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탈퇴를 통보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인종 간 갈등도 극심해졌다. 여론조사 전문가 클립이 실시한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백인과 흑인과의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5월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타격



이 짓눌려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미 50개 주 2000여 개 도시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최소 200개 도시에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규모가 1958년 일어난 마틴 루서 킹 암살 사건 직후 일어난 폭동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에는 인종 간의 분열을 조장한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남부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지상주의를 내거는 단체와 반대파가 충돌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모두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백인우월주의'를 긍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와의 연계가 지적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즈를 옹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최대 치적으로 삼아 왔던 경제 성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빛이 바랬다.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지만, 실물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지난해 9월)에 3조 달러(약 3307조5000억 원)에 달하고, 연방정부의 채무는 최근 27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미 2018년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무역적자는 2018년을 웃돌 기세라고 닷케이는 꼬집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옌칭구의 국립 알파인 스키 센터에서 선수와 코치진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하이톈구와 옌칭구의 경기장을 찾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역사적 전환점에 선 중국에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외교냐 기후냐... 바이든 첫 시험대 '키스톤 송유관'

취임 첫날 "건설 승인 취소" 계획... 캐나다 정부 "법적 책임" 반발 움직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시험대는 캐나다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환경 정책을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본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는 급히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캐나다 정부는 법적 책임을 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를 맡은 TC에너지는 조만간 재생에너지의 '100%' 활용을 중심으로 한 수정된 사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날 캐나다 CD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송유관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원유 매장량 상당수가 모래와 섞인 '오일샌드'인데, 이 경우 원유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키스톤 송유관은 석유 수송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연결하는 총 2000마일(약 3200km) 길이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 처음 허가돼 줄곧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환



2016년 12월 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장관급 회의에 조 바이든(왼쪽) 당시 미국 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해 있다. 오타와/AP뉴스

경 정책과 관련해 강공을 펼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승인이 거부됐다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 추구를 명분으로 다시 승인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로 인해 키스톤 사업은 미국 에너지·환경 정책 이정표를 상징하게 됐다.

TC에너지는 바이든 당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번 주 여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17억 달러(약 1조8719억 원)를 투자해 태양광, 풍력 등 오로지 재생에너지로만 송유관을 운영하고 2030년까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캐나다와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전날 앨버타주는 "미국 정부가 송유관 허가를 취소할 경우 회사와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비용은 90억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중 앨버타 주정부의 자금 15억 달러가 지난해 투입됐다.

WSJ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계속해서 해당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대선 직후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 최우선 과제로 키스톤 사업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佛 토탈, 印 태양광 기업에 2.7조 투자

"脫탄소 대응" AGEL 지분 20%·태양광 발전 자산 50% 취득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 중 한 곳인 프랑스의 토탈이 재생에너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섰다. 토탈은 미국석유협회(API)를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토탈은 인도 아다니그룹 산하 태양광 전문 업체 아다니그린에너지(AGEL)에 25억 달러(약 2조7558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토탈은 AGEL의 지분 20%를 갖게 되며 이사회에도 임원을 보낸다. 또 AGEL의 태양광 발전 자산 50%를 취득한다.

파트리크 푸야네 토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AGEL 투자는 두 기업의 인도 재생에너지 사업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인도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라는 두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 소식은 국제 석유자본의 한 축인 토탈이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적으로 '탈 탄소' 흐름이 강해지자 토탈은 이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토탈의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7기가와트(GW)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이를 5배 늘려 35기가와트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토탈은 15일 API를 탈퇴하기도 했다. 토탈은 "API와 탄소 배출 측정, 전기자동차 보조금, 메탄 배출 규제 등에서 견해차가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토탈과 손을 잡게 된 AGEL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AGEL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기가와트 규모이고, 2025년까지 총 25기가와트로 발전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해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인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90기가와트로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도 정부는 발전 용량을 2022년까지 227기가와트,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로 각각 확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해외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금융기업 오릭스가 인도 그린코 에너지홀딩스의 지분 20%를 9억8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최해림 기자 rog@

'백신 포비아' 수습 나선 노르웨이 "접종과 사망, 인과관계 아직 없어"

노르웨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포 잡재우기에 나섰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백신을 접종한 노인 사이에서 잇달아 사망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스타이너 마센 노르웨이약학청(NMA) 약국장은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사망자와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면서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백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노인 33명이 사망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 있는 노인

을 중심으로 총 4만8000명이 접종을 마쳤다. 지난달부터 15일까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만 보급되다 16일부터는 모더나 백신도 함께 도입됐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번에 보고된 사망자 모두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센 국장은 "이번에 보고된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한 요양원 거주 노인 1000명 중 1명꼴도 되지 않는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메신저 RNA(mRNA)를 기반으로 한다"며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사망률 등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말라 스톨텐버그 노르웨이 공중보건 연구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르웨이 요양원에서는 매일 45명의 환자가 사망한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은 초과 사망률이나 인과관계 등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접종자 사망이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백신 접종자 사망이 보고됐다. 하지만 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백신 접종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요양원 등 집단시설 생활 노인을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올리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환자들이 접종 후 사망하는 일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은 기자 better68@

수은, 상임감사 '親文 코드인사'... 공공기관 개혁 역행

금융공기업 보은성 인사 논란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을 놓고 '친문(親文)'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된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선거 캠프 인사 김 모 씨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김 씨를 상임감사직에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2017년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는 임추추전위원회(임추위)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만으로 인사 절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기타공공기관 분류 공운법 미적용 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임명

'文캠프' 거친 상임감사 내정자 전문성·자율성 침해 '도마위'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제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인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일각에서는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를 거치지 않는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



이다.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의 임명 절차만 거친다. 정부의 입김이 반영돼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다.

수출입은행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상임감사도 임추위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만 거친다. 현재 서철환 산업은행 감사는 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자

기타공공기관 상임감사 현황

| 기타공공기관 | 상임감사 | 이력 | 공통사항 |
|---------|------|--|------------------------------|
| 수출입은행 | 김○○ |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인사 문 정부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문 대통령 경희대 법학과 동문 | 임추위 단계 없이 기재부 및 금융위 임명 |
| 산업은행 | 서○○ | 문 대통령 직속 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문 대통령 직속 기구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 | |
| 서민금융진흥원 | 조○○ |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노무현 정부 한국조폐공사 감사 | |

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직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한 친문 인사다. 조성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고,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역임했다.

반면, 공운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공운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다.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재부 장관의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다. 기타공공기관도 상임감사 임명 경우에 한해 임추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라 공운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가 열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불가피... 건전성 문제없다”

금융위, 핵심추진전략 발표

“가계부채 선진화 등 제도 정비 뉴딜펀드 조성·투자 본격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4가지 중점 과제를 담은 핵심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늘어난 부채는 점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미래산업을 위해 뉴딜펀드·뉴딜금융 시장인착을 도모하고 디지털 금융확산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코로나 대출, 금융권 건전성 충분” = 금융위의 올해 4가지 핵심추진전략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의 지속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운영되는 ‘175조 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175조 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 기간산업안정자금, 채권시장안정펀드, 기업자산 매각지원 등으로 나누어 공급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의 연장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실제로 많은 차주가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규모는 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금융권 건전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큰 걱정 없이 만기를 연장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3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 = 금융위는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3분기 안으로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한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옥죄는 것은 좋지만 청년층 피해가 있었다”면서 “청년층 지원은 DSR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기존 DSR보다는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부채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로 투트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공급을,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투자도 개시한다. 올해 중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펀드도 14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올해는 17조5000억 원 규모의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0조 원 규모가 투자된다. 이밖에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해 핀테크·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동양생명, 즉시연금금소 패소 ‘1兆 미지급금 반환’ 새국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으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판결 이후, 두 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가(연금)가 지급된다며 **가입자, 미래에셋 이어 두 번째 승소** **삼성·한화·교보 등 소송 판결 촉각**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부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인 지난해 미래에셋생명보험 사건에서는 “만기환급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번 동양생명보험사건에서는 이러한 표현조차 없었다.
서지연 기자 sjy@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보험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별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의 규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은·수은·농협銀, SK하이닉스에 3.3兆 대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미래 투자를 위해 5년간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SK하이닉스와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조성도 함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SK하이닉스와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 간에 이뤄졌다. 공동지원 협의회는 산업계(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중기중앙회 등)와 금융권(산은·수은·농협 등)간 해외M&A·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미래 투자와 관련해 산은·수은·농협은행과 협력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억 달러(3조 3000억 원) 상당의 자금조달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총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부장 펀드의 일부다. SK하이닉스가 300억원, 산은과 수은이 각각 100억 원을 출연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제2건보' 실손보험, 대수술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 상품은 그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문제를 개선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따라

주계약·특약 진료 구분해 납입
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위해
비급여 항목 '보험료 차등' 적용

하고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골자로 한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병원에 간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내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보험금을 모두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주계약(급여 진료)과 특약(비급여 진료)으로 구분한다.

현행 실손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

4세대 실손보험 할증률

| | 할인율 | 비급여 지급 보험금 |
|-----|------|------------|
| 1등급 | -5% | 없음 |
| 2등급 | 0% | 100만 원 미만 |
| 3등급 | 100% | 150만 원 미만 |
| 4등급 | 200% | 300만 원 미만 |
| 5등급 | 300% | 300만 원 이상 |

가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주계약(급여 진료)과 특약(비급여 진료)으로 구분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보험금을 모두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새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하면 대다수의 질병·상해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도 1억 원 수준(급여 5000만 원, 비급여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

원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진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현행 급여(10~20%), 비급여(20%)보다 상승한다. 통원 공제금액도 기존보다 소폭 상승해 급여 1만 원(상급·중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조정된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의 인상으로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낮아진다. 금융위는 2017년 출시된 신 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된다. 도수치료 등 일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다.

5단계로 분류해 가입자 비중의 대다수(72.9%)인 1단계 대상자(지급보험료 0원)에겐 5% 내외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반대로 3단계(비급여 지급보험금 150

만 원 미만)부터는 100%의 할증이 붙는다.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200%, 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 다. 올해 지급된 보험금이 많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지만, 내년에 지급보험금이 없다면 그다음 해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암·심장질환과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에겐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재가입주기가 상당히 긴 탓에 정신질환 보장 등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장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도 15년이나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올해 실손보험료 10% 이상 인상”

규모 커진 역마진 줄여야...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2%대 그쳐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1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높은 손해율에 보험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낮은 금리 탓에 역마진을 줄여야하는 보험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근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것이다.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019년 2조8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위험손실액은 133.9%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보험업계 리스크 누적상황은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은 2.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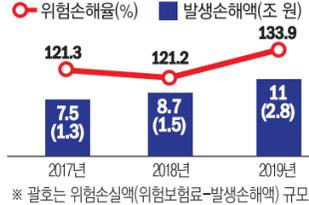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최고 20%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료 인상은 각 회사가 자율적

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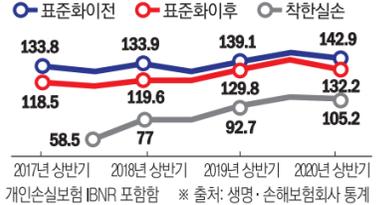
지난달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상품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 상품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를 추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추이 (단위: %)



10~11%에 해당한다. 2017년에 출시된 착한실손(신실손) 보험료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예정이율 추가 인하 방안 검토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종신보험 등 장기 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자연스럽게 된다. 예정이율이 0.25% 내리면 보험료는 7~13%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생보사 '빅3'는 저금리 기조에

다른 역마진을 이유로 두 차례가량 예정이율을 내렸다.

삼성생명도 지난해 4월에 2.5%에서 2.25%로, 다시 11~12월에 2.0%로 끌어내렸다. 한화생명도 4월에 2.5%에서 2.25%로, 7월에 2.0%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교보생명은 4월에 2.5%에서 2.25%로 내렸고, 10월에 2개 종신보험에 대해 0.25%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대형 생보사들은 상반기에는 장기 보험 보험료가 대체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평 기자 pep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빅데이터 서비스' 비우려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 기업전용 메신저
- 화상회의
- 메일
- 전자결재
- 웹오피스
- 인사관리
- 내PC 원격접속
- 웹스토리지
- 팩스
- 거래처관리
- 명함관리
- 조직도
- 문서협업솔루션
- 할일관리
- 일정관리
- 노트
-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장구, 팀빌딩, 도매인)

KB증권

세상의 투자를 바꾸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

KB증권이 가장 잘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투자를 더 좋게, 더 편하게 바꾸는 일!
KB증권으로 인해 세상의 투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그대로
편하게 거래하는 **글로벌 원마켓**

 가까운 은행에서 증권사 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전국 70여 개의 KB 복합점포**

 개인 고객도 천만 원부터 전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KB able Account**

 소액부터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로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Prime 센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539호(2020년 4월 7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207% 제비용 별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선장 없는 배, 잘 가겠나...삼성 넘어 韓 경제에 위기”

고인수 전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 걱정 토로

“안타깝습니다. 선장이 없으면 배가 잘 갈 수 있었습니까?”

삼성 신경영 전도사로 활동했던 고인수(사진) 전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날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안타깝다”는 표현을 수차례 꺼냈다.

그는 “임직원들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선장이 없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 전 부원장은 고(故) 이근희 회장이 신경영 선임을 한 직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삼성그룹 비서실 신경영 실 천 사무국장으로 5년간 재직하며 이 회장의 신경영철학을 전파하는 실무책임 을 맡았던 인물이다. 삼성 내에서 신경영 의 고전으로 불리는 ‘지행 33훈(訓)’이 그의 손에서 다듬어졌다.

그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시

이재용 부회장 실형 리더십 공백 AI·6G 등 ‘뉴삼성’ 투자 늦춰져

“국가는 기업인 격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 모습 안타깝다”



킨 ‘신경영 선언’도 결국 오너(이근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은 결국 삼성에 큰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고 전 부원장은 이근희 회장 별세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사업보국(事業報國)’의 경영자’ 이면서 20세기 말의 대변혁기에 21세기 변화를 미리 내다 보고 준비한 ‘선각자’였다”고 했다. 또 “‘나부터 변하자.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호소한 ‘개혁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1993년 ‘신경영론’을 제시하며 혁신을 주문했다. 질(質) 경영으로도 불렸던 신경영은 국내 1위 그룹에 안주하려는 임직원들의 의식구조를 바꿨다.

특히 모두가 움츠릴 때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에 나선 오너의 결단력은 삼성

의 반도체 1등을 이끈 동력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종합기술원 회장)은 지난해 7월 세계 최초 64메가(M) D램 시제품 개발일인 1992년 8월 1일을 기념하는 사내방송 인터뷰에서 “삼성의 기술 초격차 비결은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라며 “향후 위기를 타개해 나갈 때도 오너의 결단과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는 오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삼성의 미래 비전 ‘뉴삼성’을 야심차게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형 선고로 반도체, 인공지능(AI), 6G(6세대 이동통신), 전자사업 등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는 늦춰지게 됐다.

고인수 전 부원장은 “국가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복돋아 줘서 성장하게 하는

게 함께 잘 사는 길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삼성의 오너 부재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위기”라고 토로했다.

삼성은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에도 계열사 각자도생 체제를 통한 비상경영을 이어왔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전문경영인이 수조 원대의 투자나 대형 M&A를 진두지휘하기는 쉽지 않은 탓이다.

이 부회장 공백기 동안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이에 과거 미래전략실처럼 그룹 현안을 토론했고 의사를 결정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고 전 부원장은 “삼성 임직원들은 사명감으로 맡은 일에 더 열심히 매진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탁 기자 syr@

현대제철 ‘녹색채권’ 수요예측 8배 자금 몰려

5000억으로 ‘2배 증액’ 검토 조달자금 환경프로젝트 투입

현대제철이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발행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중의 하나인 녹색채권이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19일 현대제철은 전날 총 25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예정 금액을 8배나 초과한 총 2조700억 원이 몰려 회사채 발행 규모를 50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내에서 ESG 채권 발행은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녹색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ESG 채권의 하나로, 탄소 감축·건물 에너지 효율화·신재생 에너지·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된 채권을 말한다.

현대제철은 이 채권의 목적에 맞춰 만기 시까지 조달금액 전액을 환경(그린)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채권 발행이 한층 의미를 더하는 이유는 이번 ESG 인증이 신용평가사에서 진행됐으며 평가 기준 가운데 최고인 GB1(E1/M1)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의 인증을 거치면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정기적인 사후 평가를 통

해 등급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현대제철의 녹색채권 인증 평가를 실시한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제철의 관리, 운영체계가 분명하게 정비돼 있고, 투명성도 매우 높다”라며 “회사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 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논란 등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원칙에 모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현대제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크스 건식냉각설비(CDG) 도입 및 배기가스 탈황 탈질 및 품질개선 작업에 조달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LG전자 상생펀드 3차협력사로 확대

수혜 업체 20% 늘어 1000곳 최대 20억까지 대출신청 가능

LG전자는 1차, 2차 협력을 대상으로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3차 협력사도 해당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생협력펀드를 활용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LG전자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1차, 2차 협력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차 협력사도 자금이 필요할 때 상생협력펀드를 사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가 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력펀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1000여 곳이다. 지원 한도는 1차 협력사 10억 원, 2차·3차 협력사 5억 원이다. 협력사들이

밀접한 교류와 상호발전을 위해 결성된 ‘협력회’ 회원사의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LG전자는 상생협력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는 것은 물론 동반성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내달 무이자 자금 400억 원을 지원한다. 무이자 자금은 협력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솔루션 구축, 노후설비 개선, 신기술 개발 등에 활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LG전자는 1차·2차·3차 협력사가 납품대금 결제일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조기에 현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에 결제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약 5300억 원이며 국내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LG전자는 협력사가 다양한 혁신 기술을 경영 전반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공급망 적용한 부품 개발 △제조혁신을 위한 컨설팅 △무료 교육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에어로, 롤스로이스 파트너 최초로 양산 승인 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롤스로이스로부터 양산 적합성 승인 자격을 얻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이 항공기 엔진을 검수하고 있다.

항공엔진 부품 ‘자체 품질 검증’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롤스로이스(Rolls-Royce)로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 적합성 자체 검토와 승인 자격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한 항공엔진 부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PPAP)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워릭 매튜(Warrick Matthews) 롤스

로이스 구매총괄 부사장(Chief Procurement Officer)은 “롤스로이스의 중요 파트너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자격 취득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성공적인 납품 성과와 무결점 품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남형욱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사업장(상무)은 “롤스로이스가 양산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전 세계 수백 개 파트너사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라며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와 품질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수준의 품질시스템과 우수 인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기 엔진 부품은 1400도 이상 고열을 견뎌야 하는 니켈, 티타늄 등 난삭 소재를 정밀 가공해야 하고, 제품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 단위 오차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최첨단 기술력과 품질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르노삼성 XM3 ‘새차 증후군’ 저감 기준치 만족

국토부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SUV XM3(사진)가 국토교통부의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기준치를 만족시켰다. 19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XM3는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7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국토부 검사에서 모든 권고기준을 만족했고, 8개 유해물질 측정 항목 중 톨루엔과 벤젠, 자일렌, 아세트알데하이드 4개 물질이 검사 대상 차종 중 가장 적게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와 에틸벤젠, 스티렌 등 나머지 4개 물질도 권고기준 대비 낮은 검출량을 보여 ‘새 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유해물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차 증후군’이란 차의 내장재와 시트 등을 제작, 조립할 때 사용하는 페인트나



접착제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증상이다. 만성두통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벤젠과 폼알데하이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 발암물질로 구분된다. 또한, 자일렌과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은 구토와 현기증, 중추신경 이상과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같은 부작용이 있고 호흡기와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등 일명 ‘새 차 냄새’로 불리는 새 차 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전자 美자회사 '제니스' 신사업 거점 부상

디지털방송 원천기술 보유 기업
가전·전장으로 '웹OS' 사업확장

토론토 AI랩 인재채용 역할 맡고
美 TV 빅데이터 기업 인수 참여

LG전자가 27년 전 인수한 미국 자회사 '제니스'를 신사업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제니스(Zenith Electronics LLC)는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USPTO)에 '알루토(Alluto)'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알루토는 이달 27일 출범하는 스위스 인포테인먼트 기업 룩소프트(Luxoft)와의 합작법인이다.

업계에선 알루토 설립과 운영, 인재 확보 과정에서 제니스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니스가 별도 사업을 위한 법인명을 상표권으로 출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달 7일 LG전자가 발표한 TV 광고·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Alphonso Inc.)' 지분 인수 구조에도

LG전자의 미국 제니스 활용법

| | |
|------------|---------------------------|
| 1995년 | 5억5000만 달러에 인수 |
| 1998년 | 실적 부진, 외환위기로 미국에서 기업회생 신청 |
| 1999년 | 미국·멕시코 제조시설 매각 |
| 2005년 | 디지털방송 특허로 받아 흑자 전환 |
| 2014~2015년 | 웹OS 소프트웨어 상표권 출원 |
| 2018년 | 캐나다 토론토 AI랩 인재채용 역할 |
| 2020년 | 전장 인포테인먼트 합작법인 알루토 상표권 출원 |
| 2021년 | 제니스 통해 알폰소 지분 인수 |



미국 일리노이 링컨셔에 위치한 제니스 본사.

제니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약 8000만 달러(약 870억 원)를 들여 알폰소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제니스를 끼고 투자를 단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알폰

소 지분 인수 구조에 제니스가 포함된 게 맞다"라며 "제니스는 북미 지역에서 여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1995년 5억5000만 달러를 들여 당시 미국 전자제품 제조 및 개발 업체였던 제니스를 인수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니스를 활용해 현지 TV 사업망과 제조 거점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인수 이후 부진한 실적과 늘어나는 적자 폭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결국, 1998년 외환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LG전자는 제니스의 기업회생계획을 미국 법원에 신청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였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주, 멕시코에 있던 공장 5곳을 줄줄이 매각했다. 자산 평가손실 분과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인수 비용의 두 배 수준인 10억 달러에 달했다. 제니스가 보유 중이던 미국 디지털방송 원천기술 VSB(Vestigial Side Band)의 가치를 높이 산 데 따른 결정이었다.

분위기가 바뀐 건 2000년대 중반부터다. 세계 디지털 TV 시장이 급격하게 커

지면서 VSB 기술을 갖고 있는 제니스는 쓸쓸한 특허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제니스는 2005년 긴 적자에서 탈출한 이후 제조시설 없이 지금까지 수백억 원 수준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엔 북미 R&D 거점 기능을 특별히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제니스가 미 특허청에 낸 상표권을 살펴보면, 엔요(Enyo), 커넥트 SDK 등 웹OS 관련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있다. LG전자는 2013년 HP로부터 웹OS를 인수한 이후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부터 전장 인포테인먼트까지 탑재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또한, 2018년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LG전자는 토론토 AI랩 인재 채용 과정을 제니스에 맡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설립 예정인 알루토의 경우 전장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알폰소 역시 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 위주 기업"이라며 "웹OS 등 SW 개발을 위주로 해온 자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주한화, 4000억 출자

총 1.4조 태양광·수소 투자

(주한화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한화솔루션이 친환경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해 진행하는 1조4000억 원 규모(3141만 4000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의 최대 주주인 (주한화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보유지분율 37.2%(보통주 기준)에 해당하는 약 4000억 원을 출자한다. (주한화가 참여한 유상증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오늘 신주 배정을 마무리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유상증자 대금을 포함해 향후 5년간 2조8000억 원을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수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매출 21조 원, 영업이익 2조30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육경석 (주한화 이사회 의장은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미국 특허심판 각하된 SK 내용 아닌 병행 소송 때문

당국 결정문 분석해 보니
ITC서 유사 특허침해 조사중
LG 제기한 IPR 소송은 진행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을 두고 실전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IPR 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LG에너지솔루션의 IPR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결정문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각하 결정의 쟁점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 '병행 중인 소송 절차(Parallel Proceedings)'에 대한 문제였다.

LG에너지솔루션의 IPR은 9월 30일 개시 결정이 났고, SK이노베이션의 IPR은 11월 30일과 올해 1월 12일 모두 각하됐다. 이중 SK이노베이션이 PTAB에 IPR을 신청한 특허들은 모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결정문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IPR이 '핀티브(Fintiv)' 사건에서 규정한 6가지 요인(Fintiv Factors)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각하 여부를 결정했다.

핀티브 사건이란 애플이 미국의 전자결제업체 핀티브의 특허에 대해 IPR을 제기한 사건이다. PTAB 위원회(Board)는 지난해 5월 대상 특허와 관련해 병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애플의 IPR 요청을 각하하면서 그 기준으로 6가지 판단 요인을 제시했다. 6가지 핀티브 요인은 순서대로 △심판이 개시되면 기존 소송이 멈추는지 △기준 소송 일정과 PTAB 예정 기한과의 근접성 △병행 소송에 대한 기관과 당사자들의 투자(진행 단계) △IPR과 병행 소송에서

LG·SK 미국 특허심판원(PTAB) '특허 무효 심판' 일지

| | |
|------------|--|
| 3.31 | LG에너지솔루션, PTAB에 SK이노베이션 특허 무효 심판(IPR) 신청 |
| 5.26 | SK이노, LG에너지 IPR 3건 신청 |
| 2020년 5.27 | SK이노, 2건 추가 |
| 6.4 | SK이노, 1건 추가 |
| 7.6 | SK이노, 2건 추가 |
| 9.3 | PTAB, LG에너지 IPR 개시 |
| 11.30 | PTAB, SK이노 IPR 6건 각하 |
| 2021년 1.12 | PTAB, SK이노 IPR 2건 추가 각하 |

제기된 이슈들 사이의 유사성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지 △그밖에 PTAB의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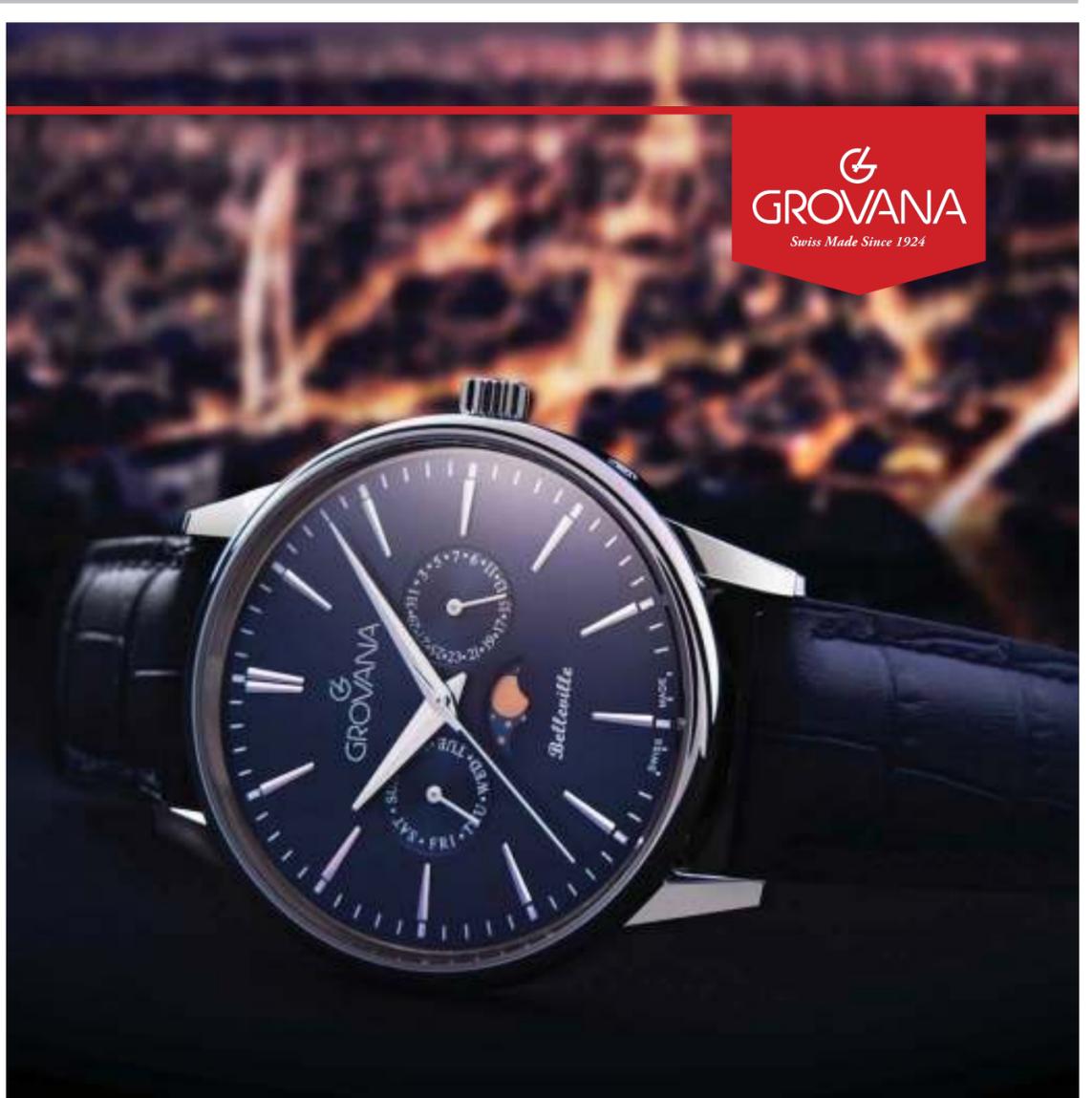
PTAB 재판부들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모든 IPR에 대해 6개 핀티브 요인 중 앞선 5개 요인에서 조사 각하에 무게를 실었다.

마지막 요인인 '그밖에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개시 결정에 약간(slightly) 무게가 실린다", "중립적(neutral)", "각하 결정에 아주 약간(only slightly) 무게가 실린다" 등 판단이 각각 나뉘었다. 사실상 특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는 병행 중인 절차에 대한 논의여부가 가장 조사개시를 결정할 요인인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이 강조한 재판부의 '특허 무효의 가능성' 언급 부분은 6가지 핀티브 요인 중 마지막에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은 마지막 'PTAB 위원회에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상황들'로 '특허 무효 신청'의 쟁점들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을 제시했다", 또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 등으로 평가한 것이다. 결정문에서 비중은 작지만 유일하게 특허에 대한 논의를 다룬 부분이기도 하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트래픽 비중 26%와 1%가 동일규제, 말이 되나요”

〈구글〉 〈웨이브〉

넷플릭스법으로 '서비스 안정 의무사업자' 웨이브 신규 추가 영화발전기금·공익광고 의무화 담은 OTT 겨냥 법안 줄줄이 업계 "유튜브·넷플릭스가 아닌 국내 OTT 발목 잡는 격" 비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일명 '넷플릭스법' 시행에 더해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서 쏟아지는 규제 법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규제 당국이 OTT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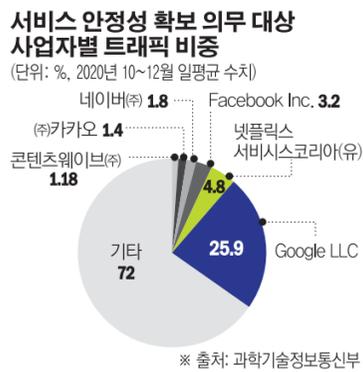
19일 OTT 업계에 따르면 최근 OTT와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늘고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서비스안정 의무사업자'에 토종 OTT인 웨이브가 이름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결과로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웨이브가 추가됐다.

◇구글·웨이브 동일 규제에 OTT 업계 긴장=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다. 전년도 말 3개

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25.9%)·페이스북(4.8%)·넷플릭스(3.2%)·네이버(1.8%)·카카오(1.4%)·웨이브(1.18%) 등 6개 사업자가 해당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또 다른 OTT 사업자인 왓차는 0.4%, 티빙은 CJ ENM으로부터 분할하기 전 0.8%의 트래픽을 차지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웨이브는 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여타 OTT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 통과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1%라는 기준이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옥죄 수 있어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이 계절적 변수도 작용하고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웨이브가 포함된 걸 보고 걱정이 됐다"며 "1%라는 기준이 다시 검토되



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구글과 1.18%를 차지하는 웨이브가 동일 규제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래픽 차이가 상당한데 규제 수준은 같다는 점이 웨이브로서는 억울할 것 같다"며 "OTT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금융위에서도 OTT에 영향 미치는 법 쏟아져=국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OTT를 겨냥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도 영화발전

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고 있는데 OTT 수익이 영화발전기금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몇 개의 사례를 들어 OTT 전체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달 5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 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더해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OTT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정법률안은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방송 광고는 방송법에 근거해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만, 인터넷 광고에서 공익 광고 의무 게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법률안에 관해 토종 OTT 업체 관계자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해외 사업체들에 책임을 지우려다 이제 시작하는 국내 OTT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OTT 사업자를 겨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 최소 7일 전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시장에서 유료 전환과 해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구독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OTT 업체들은 규제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 게시 등 생뚱맞은 규제들이 현실화하면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규제가 체계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쪼러보듯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종 OTT 업체들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OTT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시중은행 앞다퉈 늘리는데... 'IP금융' 줄이는 기보

패스트보증 등 제도 도입에도 지난해 평가보증액 큰폭 감소 '혁신기술 기업 적극 지원해야'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력은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지식재산(IP) 평가보증 금액이 지난해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보는 2019년 당시 전체 IP금융 규모(1조3504억 원) 중 기보는 전체의 40.06%를 차지하는 등 지원 규모가 매우 컸다.

하지만 지난해엔 상황이 바뀌었다. 기보가 2020년 1~11월까지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4034억 원이다. 작년 12월 통계가 아직 집계 완료되지 않았으나 2019년 총 5413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P 패스트보증 △IP 등급보증 등 신규 보증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축소하면서 기술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중은행은 IP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요구가 커지자 IP보증을 포함한 IP금융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신한, 우리, KB,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 IP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4437억 원 수준이다.

기보의 IP 평가보증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 가치평가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특허 등 기술을 보유했지만 매출액이 없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나 일반 보증으로 지원한 창업·개발자금을 다 써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술 기업들이 대거 활용해 왔다.

기보는 2006년 IP 평가보증을 처음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보가 현재 운영 중인 IP 평가보증은 △IP 가치보증 △IP 패스트보증 △IP 등급보증 등 세 개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도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기술기업이 가진 특허의 가치를 단일 주일만에 적은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기보는 4대 시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KPAS 공동활용을 통해 IP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잡기도 했다.

기보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풍림파마텍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월 1000만개 생산"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기존 대비 생산성 2.5배 증대 1명당 6회분, 잔량손실도 줄여 美·EU 등 국제특허 출원 진행

풍림파마텍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 대량 양산에 나선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최고 수준의 최소주사 잔량(LDS(Low Dead Space) 4 μL)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를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2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앞서 중기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1개월 만에 시제품 생산부터 양산설비 구축 등 스마트공장 생산설비를 완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24일 풍림파마텍과의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전사적인 지원을 집중 전개했다. 주사기 자동조립 설비제작 지원 등을 통해 풍림의 자체 생산계획(월 400만 개) 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 2.5배 생산성이 증대된 월 1000만 개 이상 가능한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의 구미·광주 협력사 공장을 통해 시제품 금형 제작과 시제품 생산을 연말 연휴 기간 중 단 4일 만에 완료해 제품 시험 및 성능 테스트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일반주사기로는 코로나19 백신 1명당 5회분(명)까지만 주사할 수 있지만, 풍림 LDS 주사기는 1명당 6회분(명)이

상 가능하다. 주사 잔량 손실을 대폭 줄여 코로나19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 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들은 백신과 함께 백신주사기를 포장해 공급하고 있다. 백신 생산량 대비 백신주사기 회분을 최대한으로 공급하기 위해 25 μL 이하 최소주사잔량 성능과 주사 과정에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가드(Safe guard) 기능이 필요하다. 풍림 LDS 주사기는 미국 제약회사의 최소주사 잔량 등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의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최소주사 잔량과 안전보호가드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기술 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미국, EU 등 국제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민관협력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기업의 스마트제조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하고 정부가 적극 후원하는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라며 "대·중소기업과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열정적으로 민첩하고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KT, 광화문 소상공인에게 밀키트 4500개 주문

'골목상권 살리기' 착한 소비 유도... 일부는 취약계층 기부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식당을 돕고자 발벗고 나섰다.

KT는 19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를 KT 광화문 사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을 타격을 받은 광화문 골목상권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KT는 내달 2일까지 간편조리로 포장된

밀키트 3000개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판매한다. 광화문 인근 20개 식당에서 1만 원에 밀키트를 구매해서 회사와 직원이 구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 계층에게 1500개의 밀키트를 기부한다.

밀키트 제작에 참여하는 식당은 지난해 9월 KT가 진행한 '사랑의 선결제'로 인연

을 맺은 음식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자 KT는 식당에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KT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 사옥 인근 50개 식당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3개월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20개 식당은 오리주물럭, 갈치조림, 제육볶음, 부대찌개 등을 파는 골목 식당이다. 밀키트에는 소비자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요리 비법이 담긴 '주방장의 레시피'를 함께 담았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2020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혼술·홈술족 잡아라” 불붙은 편의점 와인 경쟁

CU 자체브랜드 ‘음!’ 출시... 스마트오더 시스템·와인샵 운영
이마트24 ‘꼬모’ 선보여... 이달의 와인·주류특화매장 강화
세븐일레븐, 설 겨냥 와인 선물세트·1인용 와인 셀러 판매

급성장하는 와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홈술 트렌드 확산과 정부의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허용 영향에 힘입어 올해 와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는 다양한 와인을 소개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더해 ‘가성비’를 강화한 자체 브랜드까지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U는 자체 와인 브랜드 ‘mmm!(음!)’을 론칭한다고 19일 밝혔다. CU는 음!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나 실패 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앞서 이마트24가 지난해 가성비를 앞세운 자체 와인 브랜드 ‘꼬모’를 출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20일 첫 상품으로 출시되는 ‘음!레드와인’(6900원)은 1970년에 설립돼 55개국 수출하고 있는 스페인 와이너리 보데가스

밀레니엄(Bodegas Milenium)의 제품이다. 상품을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와인을 국내 고객에게 선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들어 CU는 와인 사업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CU의 와인 매출은 2018년 28.3%, 2019년 38.3%에 이어 지난해 68.1% 증가했다. CU는 지난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허용에 발맞춰 6월부터 CU의 멤버십 어플인 포켓CU를 통해 주류 예약 서비스 ‘CU 와인샵’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여기에 사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구축했다. CU는 온라인에서는 프리미엄 와인을, 점포에서는 가성비 와인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24도 올해 와인 강화 전략에 한창



CU에서 새롭게 출시한 와인 자체 브랜드 ‘mmm!(음!)’을 모델들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CU

이다. 지난해 이마트24는 자체 브랜드 ‘꼬모’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의 와인’ 행사, 주류특화매장을 발판으로 총 170만 병의 와인을 팔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30만 병 많은 200만 병을 판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달의 와인’을 확대한다. 지난해 매월 와인 바이어가 추천하는 1~2종의 와인을 할인가로 제공한 이마트24는 올해 이달의 와인

을 3등급의 가격대(1만 원 내외·1만 원 후반~3만 원대·4만 원 이상)로 세분화한다. 가성비와 고만족, 프리미엄을 키워드로 한 와인을 매달 추천해 와인 초심자부터 애호가까지 단골 고객으로 포함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마트24=와인’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는다는 목표다.

주류특화매장 확대도 이어간다. 이마트24는 2019년 2월 홈술족 증가를 예상해

주류특화매장을 도입했다. 주류특화매장은 기존 4~5종에 불과했던 편의점 와인을 10종으로 확대한 새로운 모델로 이마트24는 이를 통해 와인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 기준 이마트24는 전체 운영 매장의 절반 수준인 2400여 점포를 주류특화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설을 겨냥해 5만~10만 원대 와인부터 100만 원대 프리미엄 와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물세트 구성하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와인 품목 수는 지난 추석 대비 2배가량 늘렸다.

먼저 프리미엄 와인인 프랑스 최고급 와인인 ‘5대 샤토 와인’을 선보였다. 판매 상품은 △샤토 라피트 로칠드 2010 △샤토 또마고 2016 △샤토 라루르 2012 등 총 5종으로 130만~200만 원대 고가 상품이다. 1865 7캐베르네 소비뇽, 몬테스 클래식 세트 등 대중적인 맛의 중저가 와인 14종도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와인셀러도 판매한다. ‘오엘라 와인셀러(13만 원)’는 와인 4병을 진열할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냉동식품 후발주자들 매출 ‘왕좌’ 노린다

오뚜기, 냉동 피자 단독 선두
CJ·풀무원 뒤이어 2위 각축
비비고 만두 총매출 1兆 돌파
하림, 라면 등 HMR 제품 강화



코로나 팬데믹이 물고온 집밥 열풍에 피자, 만두 등 냉동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활발하다.

1~2강 체제가 굳어진 일부 냉동식품 및 가정간편식 시장에 신규 업체가 제품군을 강화하며 2위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HMR 수요에 맞춰 에어프라이어, 외플 제조기 등 냉동식품 제조기까지 급부상해 관련 식품 시장이 커진 점도 시장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오뚜기 1등’ 냉동피자 시장, CJ제일제당·풀무원 ‘2위 쟁탈전’=19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10월 기준) 냉동 피자 시장 규모는 1170억 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850억 원)보다 36% 커졌다.

오뚜기가 처음 냉동 피자를 선보인 2016년 당시 이 시장은 90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350억 원, 2017년 1080억 원, 2018년 122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시장이 커지자 풀무원, CJ제일제당 등이 잇달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현재 냉동 피자 시장은 오뚜기와 CJ제



오뚜기 ‘콤비네이션 피자’ (위쪽)와 CJ제일제당의 슈완스 협력 제품 ‘고메 프리미엄 피자’.

일제당, 풀무원 ‘1강 2중’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오뚜기는 1등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의 시장 참여로 2017년 시장점유율 70% 정점을 찍은 이래 2018년 65.6%, 2019년 56.2%, 2020년 44.6%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오뚜기의 아성을 위협하는 건 CJ제일제당이다. 2018년 인수한 미국 냉동 피자 2위 업체 슈완스와 협력해 내놓은 프리미엄 냉동피자 라인 ‘고메 프리미엄 피자’가 주인공이다.

제품 개발단계부터 슈완스와 협력해 도우, 소스, 토핑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냉동 피자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CJ제일제당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23.8%, 2019년 29.9%로 점차 확장 중이다.

여기에 풀무원까지 가세했다. 2019년 ‘노옛지 짬뽕도핑’을 앞세우며 냉동 피자 시장에 등장한 풀원은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 21.3%로 CJ제일제당(23.2%)을 턱밑 추격 중이어서 2위 쟁탈전도 만만치 않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연구원은 “냉동피자는 값싼 가격과 1인 가구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지난 2~3년간 오뚜기 냉동 피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19년 들어 냉동 빵, 냉동 생지 등 다양한 냉동 간편 간식이 피자를 대체하면서 시장은 정체가 들어섰다”라면서 “그러다 지난해 냉동피자 시장에 새로 뛰어든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다시 반짝 성장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만두 시장선 풀무원·오뚜기가 ‘비비고’에 도전장=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특히 활황을 누리던 만두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며 어느때보다 뜨겁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비비고 만두의 국내 총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11월 기준) 국내 만두 시장은 4832억원으로

CJ제일제당이 이 가운데 45.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굳히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업계 중위권에 머물던 풀원은 2019년 3월 출시한 ‘얇은피 만두’가 새로운 카테고리 형성하며, 단숨에 2위로 치고 올라왔다. 이른바 만두 시장에서의 ‘피의 전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오뚜기도 프리미엄과 독특함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만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9년 고급 속 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군 ‘X.O.만두’ 제품군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비건 소비층을 겨냥해 ‘그린가든 만두’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후 어묵을 활용한 만두피 ‘X.O. 어묵만두’, 오뚜기 인기 라면 제품인 ‘진짬뽕’과 콜라보한 ‘진짬뽕 만두’, ‘X.O.교자 김치’를 잇달아 출시하며 변주 중이다.

◇라면·즉석밥 등 HMR 강화하는 하림=HMR 제품군 강화에 나서는 하림의 행보도 눈에 띈다. 하림은 최근 즉석밥 ‘집밥’을 프리랜칭하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어 라면 출시를 준비 중이며 국·탕·찌개 등 HMR 제품을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즉석밥, 라면은 2018년 전북 익산에 착공한 하림푸드컴플렉스에서 생산된다. 총 3만6500평에 달하는 이 공장은 현재 거의 완공된 단계이며 천연 조미료, 소스, 즉석밥, 라면 등의 HMR 제품들이 만들어진다.

김혜지 기자 heyji@

하이트진로 ‘두겹상회’ 부산·대구도 매장 진출

“두겹상회가 돌아왔다.” 하이트진로는 주류 캐릭터샵 ‘두겹상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산과 대구에 매장을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두겹상회는 지난해 8월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로 오픈해 70일간 누적방문객 1만여명을 돌파한 어른이 문방구다.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가방, 소맥잔을 비롯한 각종 소품을 판매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18일 오픈한 부산 두겹상회는 내달 28일까지 총 42일동안 전리단길(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운영된다. 이번 부산 두겹상회에서는 진로 캐릭터 두꺼비 굿즈를 비롯해 하이트진로의 인기 굿즈 및 판촉물 총 90여종을 선보이며, 특히 부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시그니처 캐릭터가 추가되었



다. 매일 12시부터 20시까지 8시간 운영되며,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부산 두겹상회에서는 핵인싸템인 ‘참이슬 백팩’을 비롯해 서울에서 1만여 개 이상 팔려 가장 많이 판매된 ‘요즘 소맥잔’과 ‘두꺼비 피규어’ 등을 비롯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핑크 두꺼비 한방울잔’ ‘진로 다이어리’ ‘참이슬 보냉 백팩’ 등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어른이 문방구 ‘두겹상회’를 27일 오픈할 예정이다. 대구점은 3월 14일까지 운영하며 대구 힘성로라 불리는 중구 서성로(북성공구골목)에 문을 연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이번 두겹상회는 소주의 원조 진로와 정정라거 테라를 사랑해주신 지방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교촌에프앤비 창립 30주년 CI 리뉴얼

교촌에프앤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종합 식품외식그룹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CI는 교촌의 영문 첫 글자인 ‘K’를 심볼마크로 삼았다. ‘K’ 이니셜은 교촌의 기업철학인 정직과 신뢰

(Integrity)의 ‘I’와 나눔과 소통(Communication)을 뜻하는 ‘C’의 결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로고타입은 기존 캘리그래피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고딕의 견고함이 나타내는 진중하면서 모던한 이미지로 변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 따른 CI 활용의



에 담아 미래를 향한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총괄사장은 “창립

범용성도 갖도록 했다.

교촌은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의 의미를 새 CI

30주년을 맞아 교촌의 철학과 글로벌 이미지를 이번 CI를 통해 형성화했다”며 “CI에 담긴 의미처럼 정직하고 신뢰 받는 기업으로서 교촌의 제2 도약을 고객, 가맹점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촌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BI(Brand Identity)와 SI(Store Identity)를 리뉴얼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韓, 신흥국펀드 중 역대급 비중... '外人 귀환' 신호탄?

10.4%로 한 달 새 2%p 가까이 늘어... 대만 9.9% 제쳐 코스피 매수세·달러화 약세 등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감 "글로벌 경기 회복 자신감 있어야 외인 돌아올 것" 의견도

최근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특히 한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들이 다시 귀환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언택트 등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춘 점이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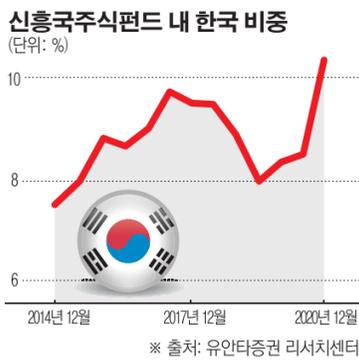
19일 유안타증권과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신흥국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10.4%를 기록했다. 대만 비중은 9.9%였다. 지난해 9월만 해도 한국과 대만 비중은 각각 8.5%, 9.0%로 대만보다 뒤처졌다.

인도는 2018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9.4%까지 비중이 높아졌으나,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29%를 웃돌던 중국 비중은 27.6%로 줄어들었다.

MSCI 아시아 지수 등을 추종하거나 벤치마크로 삼는 펀드에 들어오는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비중을 늘렸다는 의미다.

아시아 지역 펀드에 글로벌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계속 엑스더스 행렬을 펼치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조7538억원(유가증권 시장)을 팔았던 외국인은 올해 들어 1847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달



리화 약세 움직임도 외국인 귀환을 전망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유안타증권 김후정 연구원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자산을 부분적으로 이익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신흥국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주식펀드와는 달리 한국 현물시장에서는 자금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선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 주식펀드엔 중화권 내부 자금도 일부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한국 펀드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건 다른 문제"라면서 "약달러 국면에서 이머징 자산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은 1월 들어 4조원 넘게 코스피200선물을 팔았다. 월간 매도 규모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에 육박한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오르자 한국시장에 대한 선물 매도(Short) 포지션을 구축한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은 나뉜다. 지난해 말에 설정한 매수포지션의 이익 실현이라는 주장과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헤지 차원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향후 가격조정을 염두에 둔 투기적 매도라는 주장도 있다.

전군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에 급등한 국내의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반전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상승탄력의 둔화, 장종 변동성 확대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실적 수준과 경기회복 탄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열된 투자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매도는 향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에서 진행된 단기 헤지전략(Target Volatility)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

“이번엔 수소차”... 현대차, 시총 4위 굳히나

애플과의 전기차 협업 이어 '수소연료전지' 모멘텀 기대 올 영업익 6조6000억 전망 목표주가 30만원대 줄상향



현대자동차가 '애플카 수혜' 등에 연일 급등하면서 시가 총액 4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로보틱스·전기차 등으로 수직 상승한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에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가질 것인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체제' 현대차의 혁신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는 30만 원대로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현대차 시가총액은 55조3401억 원으로, 순위도 2주 사이 8위에서 4위로 수직 상승했다.

NH투자증권(33만원), 유진투자증권(32만5000원), 삼성증권(32만5000원), 현대차증권(30만원), 메리츠증권(30만원) 등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재료는 실적이다. 국내증권사 10곳이 예상한 올해 연

결 기준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평균은 6조617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였던 2조8585억 원과 비교하면 131.5% 상승한 수치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GV80, 신형 투싼, G80 등 고수익성 모델의 판매가 양호했다"며 "공급 축소, 재고 감축으로 인한 판매 조건 개선과 중고차 판가 상승으로 북미 판매 법인과 캐피탈 사의 실적 개선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그리는 장밋빛 미래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현대차는 인수·합병(M&A)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단행, 로봇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을 냈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양산 능력과 글로벌 네

트워크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수월할 것인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협업 논의와 함께 2025년 전기차 시장 10%까지 확대할 계획도 시장을 부풀게 했다.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화두인 애플카 협업 이슈는 단기로는 협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향후 계약 조건에 따른 상당한 득실의 차 등을 고려 시 이벤트 주도형에 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장기로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소는 비싸고 세계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단점이 있지만 풍부한 시중 유통성을 바탕으로 자금 유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로보틱스·전기차에 대한 현대차의 경쟁력은 시장 순위 수준이라면 수소차는 글로벌 1위 업체로 수소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 전망이다.

강승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애플과의 전기차 협력 가능성과 별개로,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50조 원 정도인 현대차 주가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증권업계 “마이데이터 선점” 사활

증권사 중 미래셋대우만 예비허가... 27일 본허가 심사 NH투자·하나금융·KB금융지주 전담팀 구성 준비 박차

국내 증권사들이 한국의 민트(Mint)를 꿈꾸며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테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외부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온 이이다.

하나금융투자과 KB증권은 금융 그룹이 전자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4개 계열사 모두 2월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고, KB금융지주 역시 은행·카드·증권 내 마이데이터 전담 조직을 마련해 2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2월 예비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정보의 집약이 이루어진다. 내 신용정보, 예를 들어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을 한곳에 모아 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업자에게 내 정보를 모두 보낼 수 있다. 가장 먼저 변화할 영역은 증권 등 금융권이다.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종합해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산관리(WM) 역량에서

비교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회원수 5000만명이 넘는 민트(Mint)는 우리의뱅크샐러드와 비슷한 서비스다. 개인이 자산화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통합해 관리한다. 부동산, 계좌, 대출, 신용카드 등은 기본이고 금이나 미술품도 취합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의 영역에서 먼저 시작했고 사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월 4일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에 하던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모두 접어야 한다.

지난해 받은 1차 신청에서 예비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셋대우 뿐이다.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예비 허가를 받고, 오는 27일 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본허가를 받게 되면 계열사인 토스증권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원앱(one-app) 전략으로 고객이 하나의 어플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 토스증권 고객들에게도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eoml@

10만원 이상 이체시 최대 3만원 펀드쿠폰 제공

대신증권 '오픈뱅킹으로 모여라' 이벤트

대신증권은 오픈뱅킹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10만 원 이상 이체한 고객에게 최대 3만 원 상당의 펀드쿠폰을 제공하는 '대신증권 오픈뱅킹으로 모여라'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대신증권 오픈뱅킹서비스는 대신증권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직관적인 화면구성(UI)을 구성하는 등 고객 사용 편의도 강화했다. 이 이벤트는 대신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사이보스 터치'에서 오픈뱅킹을 연결한 고객 모두에게 '펀드쿠폰 1만 원권'을 제공한다.

김우람 기자 hura@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21일까지 온라인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13606회를 총 3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애플(AAPL, UW)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부분보장형이다.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 삼는 만큼

지수를 추종하는 ELS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최대 원금손실이 투자원금의 15%로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상품 만기는 6개월이다. 가입 3개월 이후부터 1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하여 최초 기준가 대비 각각 97%(3개

월), 95%(4, 5개월), 90%(6개월) 이상 이면 연 8.0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4번의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원금손실률은 기초자산 가격 하락률+10%이며 최대 -15%로 제한된다.

이인아 기자 ljh@

빗썸(Bithumb)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 추이 (2021년 1월 19일 17: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등락률(%) |
|------|------------|------------|--------|
| 비트코인 | 40,247,000 | 516,000 | 1.3% |
| 이더리움 | 1,487,000 | 28,902,387 | 254.8% |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등락률(%) |
|---------|---------|------------|--------|
| 비트코인캐시 | 572,000 | 44,000 | 8.3% |
| 리플 | 332 | 26 | 8.5% |
| 라이트코인 | 177,800 | 20,600 | 13.1% |
| 대시 | 141,600 | 5,600 | 4.1% |
| 이오스 | 3,137 | 88 | 2.9% |
| 비트코인골드 | 13,960 | 350 | 2.6% |
| 이더리움클래식 | 8,815 | 38 | 4.6% |
| 퀀텀 | 3,530 | -44 | 1.2%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과천 전셋값, 폭등→폭락→급반등 ‘롤러코스터’

두달 넘게 ‘나홀로 내리막’ 걷다, 지난주 0.51% 켜춤

서울·수도권에서 나홀로 내리막길을 걷던 경기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세로 방향을 바꿨다. 2000가구 규모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데도 15%에 불과한 전세 물량과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의식한 집주인들의 전세 호가 높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 과천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부터 두 달(지난해 12월 21일 제외) 넘게 미끄러지던 전셋값이 급반등했다.

시장에선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전세 호가가 높아진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단지 전용면적 84㎡형은 전세 시세가 최저 9억5000만 원선이나 대부분의 매물이 10억~11억 원 선에 나와 있다. 최고 호가는 12억 원이다. 이달 초 최초 8억 3000만 원에 나왔던 전용 59㎡형 전세 물건은 1000만 원 하향 조정했다가 다시 8000만 원 올라 현재 9억 원을 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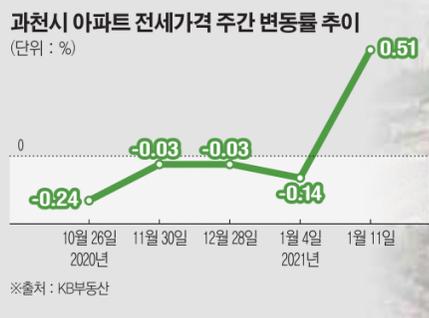
인근 원문동에선 래미안슈르 전용 84㎡형 이이달 7억1000만~8억6000만 원에 전세 거

이달말 집들이 ‘위버필드’ 입주율 85% 전세매물 품귀·임대차법 여파에 새 아파트 쿠파 높아져 호가 올려 올 입주물량 5553가구 역대 최대

래됐다.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전용 84㎡형도 이달 8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입주를 앞둔 과천 위버필드는 2128가구 대단지다. 입주 여파로 해당 단지는 물론 주변 아파트까지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아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같은 통념이 깨지고 있다. 과천 위버필드만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근 A공인 측은 “과천 위버필드 소유자들의 입주율이 무려 85%에 달할 정도”라며 “전세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이 오르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도 과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가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니 4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최근 새 아파트 전셋값은 크게 뛰었다. 원문동 B공인 관계자는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들이 호가를 많이 높였다”며 “임대차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대단지 새 아파트 전세 호가가 이렇게 치솟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몇년 새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 반복해왔다. 2019년에는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과천지구) 등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수요가 몰려들어 이 일대 전

셋값이 수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2019년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2% 뛰었다. 당시 경기도가 0.68%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천 전세시장이 얼마나 들끓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2월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1년 거주에서 2년 거주로 강화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세입자들은 썰물 빠지듯 대거 나갔다. 과천 전셋값 변동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비슷한 시기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씨밋’ (1571가구)은 입주에 돌입했다.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조합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전세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도 낙폭을 키웠다. 이후 입주 물량 해소에 제자리를 찾았던 과천 전셋값은 지난

해 말 부림동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 (1317가구)과 과천 위버필드입주로 공급 물량 폭탄을 맞았지만 수도권 전셋값 급등세에 예상보다 빨리 소화 불량을 이겨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해 과천에선 5553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1990년 이후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다. 과천 위버필드를 제외하고도 연말 3425가구의 입주 물량이 더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도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과천 내 노후단지가 많고, 3기 신도시(과천지구) 사전청약까지 앞두고 있어 전셋값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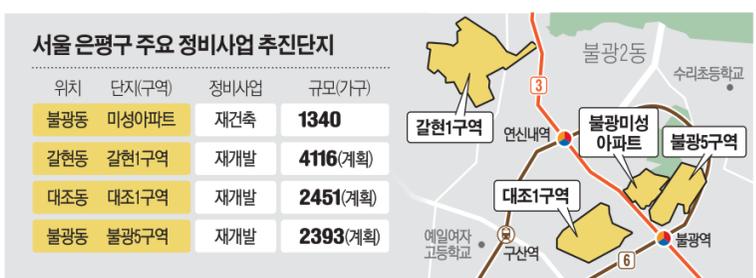
노후주택 밀집 은평구 ‘대규모 정비사업’ 활발

서울에서도 노후주택이 유난히 많이 몰려 있는 은평구가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 새 단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재개발 3총사’로 불리는 갈현1·대조1·불광5구역에 이어 재건축 사업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에 집값도 오름세다.

정비사업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밀안 전진단에 다시 착수했다.

1988년 준공된 아파트는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용적률은 227%, 건폐율은 17% 수준이다. 이 단지는 앞서 재건축을 추진한 바 있다.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적정성 심사에서 반려됐다. 적정성 심사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가 거쳐야 하는 2차 안전진단 절차다. 적정성 심사 판문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 부실공사와 노후화로 수도권에서 녹물이 나올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0일 8억5000만 원에 팔렸다. 동일 평형의 직전 거래인 전월 8억 원에서 5000만 원 오른 최고가다. 전용 125㎡형도 지난달 9억8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수의 기존 최고가인 9억3000만 원보다 5500만 원 더



불광동 미성 정밀안전진단 착수 주거환경개선 기대 ‘신고가 경신’ ‘갈현1·대조1·불광5’ 재개발 속도 주변지역 공공재개발 재도전 의지

뛰었다. 인근 V공인 관계자는 “인근의 재개발 사업지들에 이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에선 앞서 재개발에 들어간 갈현1구역, 대조1구역, 불광5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재개발 3총사’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과 불광역을 긴 구역들이다.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12지역 중심 중 하나로, 향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과 신분당선 독버위역의 트리를 역세권 교통 호재를 안고 있다.

연신내역과 가까운 갈현1구역은 총 사업비 9200억 원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개발지로 꼽힌다.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이곳에 4116가구 규모의 매머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조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이 일찌감치 2017년 시공권을 따냈다. 대조동 일대 부지에 2451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미성아파트 옆에 위치한 불광5구역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2393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은평구 내에서는 이들 재개발 3총사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많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공공참여형 재개발) 사업에는 서울 자치구들 중 가장 많은 8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수색동과 증산동, 녹번동 등지의 이들 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일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공공사업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들 중 여건과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전셋값 뛰는데 시중銀 ‘전세대출’ 조이기 서러운 ‘전세 난민’

#. 세입자 A 씨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B은행을 방문했다가 진땀을 뺐다. 대출 연장 심사가 신규대출 심사만큼 간간해졌기 때문이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받았다. 2019년 대출 연장 때 서류 몇 장에 사인만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B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문턱 높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셋값 급등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액이 2019년보다 30% 이상 늘자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격자수 상승률은 3.01%로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5조988억 원으로 2019년 말 잔액 80조4500억 원보다 24조6456억 원(30.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말만 2조8000억 원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 집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은행권에

전세자금대출 잔액 작년말 105조원 넘어 신한銀 우대금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려 KB국민 지난달 한시중단... 서민부담 가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트(P) 인하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기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는 각각 0.1%P 인상한다.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시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우대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업계 1위인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다른 은행도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급증했다.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무섭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5.58%로 집계

전셋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면 전세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은 증가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상당사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모집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새해에도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계속되면 KB는 물론 다른 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리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일수록 더 큰 부담을 받는다”며 “전세대출마저 조이면 장기적으로 전세 거주자의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역세권 ‘고밀 개발’ 길 열렸다

이르면 4월부터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로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

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

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17개 의혹 중 13개 무혐의... 유족들 “말도 안돼” 격분

세월호 참사 특수단 수사 종결 외압·사찰 일부 사실 확인에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판단 해경 과실치사 등 기소 두 건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기살군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

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단은 구체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진 것은 두 건이다.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과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 유형 | 사건 요지 | 수사 단서 | 수사 결과 |
|------------|---|--|----------------------|
| 세월호 침몰원인 |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 | 유가족 의혹 제기 | 혐의 미확인 |
| 해경 구조책임 |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등 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 유가족 고소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 의뢰 | 11명 불구속 기소 등 혐의없음 |
| 진상규명 방해 | 특조위 활동 방해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 의뢰 | 9명 불구속 기소 등 |
| 증거조작 은폐 관련 | DVR 조작 의혹 | 사참위 수사 의뢰 | 처분 보류(특검 인계 예정) |
| 정보기관 사찰 |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국정원,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 의뢰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 의뢰 유가족 고소 | 혐의없음 혐의없음 혐의없음 |
| 기타 |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등 8건 혐의없음 /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 재배당 예정 | | |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일정 부분 조사를 진행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정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4년 전 사고 당시에는 더 자료가 없었다”며 “마땅한 이유 없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가족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연환경센터에서 수원도시공사 임직원들이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탈플라스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사법 위반’ 딜로이트안진 임원 재판에

교보생명 고발 후속 조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중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 투자자(FI) 2명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데 뒤따른 조치다. 어피티 컨소시엄 등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이며 신장재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주식 등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받아내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IPO가 시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피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 개인이 되사라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티 컨소시엄은 보유 주식 492만 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사라고 요구했다. 딜로이트안진은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 시점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업계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활용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일(2018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FI 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당시 교보생명 관계자는 “평가기준일(FI 측에) 유리하게 선택한 것은 의뢰인의 주문에 부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종용 기자 deep@

檢 ‘투자금 횡령’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을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금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펀드 자금 508억 원을 선물 옵션거래를 포

함한 개인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이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 수천 명에게 약 1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부동산이나 부실기업, 상장사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영 기자 pgy@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상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항가에는 도움이나 정보

물 주는 변호도 선택도 없어서 잘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권 / 214,0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 권을 읽고 1000 권을 읽어내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버린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운 좋은 길에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8원 / 21,500원

swanicoco
NATURAL COSMETIC

겉과 속 2중 잠금으로 눈에 보이는 동안 피부

SWANICOCO ORIGINAL PURE AMPOULE

EGF & FGF 퓨어앰플

10ppm 99% 고함량 앰플
피부 흡수 촉진 기술 적용



스와니코코 전속모델 문예원

Charlotte
문예원

“지금 서울시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때”

4월 보선 출사표 던진 이종구 前 의원

“IMF때 재경부서 168조 공적자금 책임자로 위기 극복 앞장” 주택 공급 확대·대출 기준 완화·세금 인하 3가지 대책 제시

“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문턱 낮추겠다. 세금 폭탄도 해결하겠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공약은 명쾌하다. ‘미친 집값 소방수! 세금 폭탄 해결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통 경제전문가인 이 전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맡으며 168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 실무책임자로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서울시민의 가장 고민거리인 집값, 세금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무게감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의원은 크게 △주택 공급 △대출 기준 완화 △세금 인하 등 3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10년간 120만 호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약 3000억 원을 출연하면 15배까지 보증해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4조500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져 약 3만7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기금 규모는 점점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지을 공간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며 강동, 금천, 구로, 도봉 등 외곽이지만 역세권에서 멀지 않은 곳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1~2년 내 공공 묶여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업지구 주거비율은 80%에서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특히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들을 위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늘리고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 도중 정책 공약이 적힌 패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다”며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 불과해 80%까지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점도 제시했다. 그는 “이 4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유세 중 특히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서울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양도세 역시 낮춰서 집값도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30~40%가 호남 출신인데, 이들이 얼마나 아권으로 돌아서 주느냐가 관건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역동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나서서 정부부처, 대학교들과 함께 산학협동을 통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대폭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혜숙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왼쪽 사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오른쪽)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내정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선임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혁신경제 분야의 전문가다.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슐퍼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 이사장은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이사장이다. 초고속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여 왔으며, 대한전자공학회 최초 여성회장을 지내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

정일환 기자 whan@

비보존,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두현·박홍진 각자대표 체제

통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비보존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이두현(사진) 비보존그룹 회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이두현 회장과 박홍진 대표이사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10여 년 동안 암젠, 존슨앤존슨, 릴리 등 다수 글로벌 제약사에서 진통제를 개발한 통증 및 신경과학 전문가다. 2008년 비보존을 설립,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을 발굴했다. 계열사 인수를 통해 비보존을 신약 개발부터 임상 진행, 완제의약품 생산과 유통 및 판매까지 가능한 글로벌 종합제약그룹으로 성장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호감도 ‘최저’로 백악관 떠나는 멜라니아 여사 “최고가 되자, 그러나 폭력은 안돼” 작별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을 떠나기 이틀 전, 작별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인에게 최고가 되면서도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7분짜리 영상(사진)에서 미국인을 향해 “영부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면서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국민의 나라를 대표할 기회를 얻어 겸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의사당 폭동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폭력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갖되 폭력은 답이 아니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했

던 ‘최고가 되자’ 캠페인을 거론, “증오보다 사랑을, 폭력보다 평화를,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앞세우기 위해 모든 미국인이 ‘최고가 되자’의 전도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고가 되자’는 청소년 복지 향상과 온라인상의 괴롭힘 방지를 추구하는 캠페인이다.

한편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 CNN방송의 호감도 조사에서 4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고치는 2018년 5월의 57%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축하 서한

한미동맹·경제협력 확대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사진)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전달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협력 질서 재건으로 코로나19발(發) 글로벌 대위기를 국제사회가 공동 극복할 수 있는 전세 역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산실이 된 국가로 “동맹의 가치를 알린 표석”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양국에 있는 1200여 개 한미 기업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로서 상호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로 활동하고 있다”며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무역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수년간 훼손되었던 자유무역·다자주의 질서 회복 및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상호 윈윈의 경제 교류 원칙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을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핵심 주체인 한국 경제계도 자유무역 확대와 역내 경제 부흥, 신흥국 경제발전 지원의 중추적인 파트너로서 활약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역내 한미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에 선보였고, 동시에 TV와 연극 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아 연기에도 발을 담갔다.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정보 △지식산업감사과장 임경환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유잔디 △위원장비서관 김성균
- ◆주택금융공사 <전보> ◇지역본부장 △수도권본부 임수현 △수도권서부 광해일 △서남권 김남혁 △동남권 허범성 △부장 △재무회계부 유승찬 △사회적가치부 김형목 △준법경영부 손정주 △유동화증권부 서동우 △유동화자산부 김경기 △사업자보증부 임대근 △채권관리부 서정훈 △업무지원부 강용문 ◇지사장 △서울서부 주창호 △경기남부 김용배 △경기중부 박창모 △경기동부 정종태 △경기북부 김병민 △인천 박형규 △강원서부 이재현 △광주 양기범 △전남 신일용 △부산 장대혁 △대구 김진효 △울산 류숙현 △경남동부 송문석 △경남서부 명성용 △제주 최희진 △채권관리센터 오주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팀장 명창연 △검사총괄실장 류수현 △한빛규제실장 이정재 △월성규제실장 김대식 △심사총괄실장 장동주 △방사선안전연구실장 최경우 △안전기준실장 정연기 △해체규제실장 유승재 △총무

- 회계실장 연제승 △구매자산실장 김현성 △신고리56PM 김상진
- ◆서민금융진흥원 ◇1급 승진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장 김금석 ◇2급 승진 △사이버금융부장 김성욱 △감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차주환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안재현 ◇부장급 전보 △평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신승주 △목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정환 △대출상담부장 강운선 △금융교육부장 안수진 △고객컨설팅부장 김미혜
- ◆BK기업은행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동 지역본부 이상직 △남중지역본부 황인선 △경동·강원지역본부 이재성 △부산지역본부 구성민 △충청지역본부 유창환 △호남지역본부 박은순 △카드사업본부 이상섭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차재영 △인사부 박봉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일두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채한식 △서부지역본부 최광진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지원부 김동석 △투자금융부 조광진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정성희 △강남기업금융센터 음미애 △개인고객부 이찬수 △개인여신부 이희국 △경영관리부 박일규 △경영관리부 IR팀 이홍석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춘기 △강동강북

- 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상현 △강서서부 △조한승 △강서서부 (수석심사역) 염동복 △경서남중 △윤진태 △경서남중 (수석심사역) 오지진 △부산경남 △이봉한 △부산경남 (수석심사역) 김정중 △충청 △박종화 △충청 (수석심사역) 이수일 △기업개선부 김정주 △사무투자부 김종철 △인재개발부 이동연 △총무부 이진홍 △경영지원그룹 데이터센터구축팀 조성희 △빅데이터센터 이종현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기원서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정희선 △사회공헌부 최성호 △내부통제총괄부 양승미 △비서실 백창열
- ◆BC카드 ◇임원 신규 선임 △경영기획총괄 전무 조일 △프로세스본부장 상무 박복이 △금융플랫폼본부장 상무 오성수 △스마트사업담당 상무 조정범 △부문장 승진 △결제사업부문장 전무 이정호 △전략사업부문장 전무 채병철 △본부장 승진 △페이북본부장 성기운 △IT개발본부장 박현일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임표 △결제플랫폼본부장 상무 서거정 △영업본부장 상무 장길동 △글로벌사업본부장 상무 임남훈 △금융사업본부장 상무 박상범

부음

‘타인의 취향’ 佛 배우 겸 작가 바크리

카메라 앞에서, 뒤에서도 빛났던 프랑스 영화배우 겸 시나리오 작가 장피에르 바크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 바크리의 대리인은 암 투병을 해오던 그가 18일(현지시간) 오후 영원히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 프랑스앵포 방송 등이 전했다.



바크리는 칸 영화제와 함께 프랑스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세자르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각본상을 4번, 남우조연상을 1번 받았다. 각본상은 모두 그의 옛 연인이자 배우 겸 감독 아녜스 자우이와 공동 집필한 작품이었다. 바크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 ‘타인의 취향’(1999), ‘룩 댓 미’(2004), ‘레인’(2008) 등은 자우이가 감독을 맡은 영화다. 바크리는 1951년 알제리에서 태어나 1962년 가족과 함께 프랑스 칸으로 이주해 문학에 빠져들었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파리에 온 그는 1977년 처음 연극 대본을 세

- ▲이범상(한국전 참전용사) 씨 별세, 이우종·윤종(충남아산프로축구단 대표이사) 씨 부친상 = 19일, 온양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41-547-4444
- ▲정덕자 씨 별세, 박문수(서문인테퍼니(주) 대표이사)·철수(아워박스 대표) 씨 모친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2-3410-6903
- ▲이성재 씨 별세, 이상순(YTN 기자·미국변호사)·효정(상현고 교사)·수정 씨 부친상, 유재훈(금융위원회 국장)·고석호(에이지에스 사장) 씨 장인상, 황혜인 씨 시부상 = 19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1일, 02-923-4442
- ▲강정수 씨 별세, 강대진(농협은행 여신심사부본부장) 씨 부친상 = 19일,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1일, 055-750-8000
- ▲김해권 씨 별세, 김은정 씨 부친상, 정은호(연합뉴스 재무회계부 영업관리팀 차장) 씨 장인상 = 18일, 영등포 장례식장 402호, 발인 20일 오후 1시, 02-2679-4444

유럽은 지금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 도전한 리브라 연합은 '국경 없는 금융 사회'를 목표로 2020년 이내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였으나, G7의 강력한 압박으로 좌초되었다. 이후 다수의 기업이 탈퇴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은 디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쯤에 위치한 디엠과 국가 단위 CBDC 등 올해는 화폐제도에서의 기념비적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본위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gold standard)!" 이는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가장 보수적 주장 중 하나다. 물론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으나, 2011년 이후 최소 미국 6개 주에서 금과 은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거나, 공화당 내에서 꾸준한 금본위 위원회를 요구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옹호하며 '새로운 브레튼우즈 회의'를 통해 다시 달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보수주의가 1971년 스스로 절명시킨 금본위 달러 기축통화제를 심폐소생시키려 하는 동안, 중국은 기축통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진행해 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도래할 디지털 기축통화 역할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소액결제용 CBDC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 쑤저우, 송안신구, 청두 등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추진해 왔다. 중국 정부가 2022년 2월 개최될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까지 CBDC 위안화를 정식 도입하여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밀리지 않으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행보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BDC는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가 사적 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CBDC는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적 영역의 디지털 화폐다. CBDC 또한 암호화폐의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 화폐의 거래에 필요한 은행, 금융회사 등의 중간 매개체 없이 블록체인의 거래 증거로 상용될 수 있어 즉각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가 CBDC 도입을 선언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상승한 바 있다.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 도전한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등 굴지의 기업들의 참가를 이끌어 리브라 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국경 없는 금융 사회'를 목표로 2020년 이내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였으나, 주요 7

개국(G7)의 강력한 압박으로 좌초되었다. 이후 다수의 기업이 탈퇴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은 디엠(Diem)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쯤에 위치한 디엠과 국가 단위 CBDC 등 올해는 화폐제도에서의 기념비적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또한 CBDC 발행에 합류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상 권한 및 시장 권한이 연합에 이양된, 역내 단일 시장을 갖춘 EU는 디지털 유로(euro)를 위한 각국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발행량 조절과 통화 흐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를 무한 공급한다거나, 중국 위안화 등 특정 화폐들의 인위적 평가절하 노력도 반감시킬 수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도입을 통해 각국의 유로 발행량과 통화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2010년대 초 겪었던 유로존 위기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국 통화정책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

ECB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디지털 유로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는 8000여 개 기업과 시민의 응답이 집계되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로화 CBDC 추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각국 정부는 국제적 통화화폐와 결제 화폐로서 유로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ECB가 주도하는 유로 CBDC가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영국,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 및 스웨덴의 6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올해 공동으로 CBDC를 연구하는 그룹을 설립해 미·중을 제치고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올해 미·중과 EU 내 CBDC 도입이 속속 진행되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 또한 작년 말부터 CBDC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하며 국제적 흐름에 합류하였으나, 통화-결제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CBDC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의 연계 전략 또한 필요하다.

조여린의 벤처 만들기

미국 뉴스쿨 학장·패션스 디자인스쿨 경영학과 종신교수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상상을 초월한 이 난동을 부추긴 트럼프는 임기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 의회가 탄핵절차를 시작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 직후 페이스북을 포함해 애플, 유튜브 등에서 트럼프의 계정이 삭제됐다. 특히 트위터는 트럼프가 개인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계정으로 열어놓은 것도 바로 없애버렸다. 트위터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반항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트위터의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거센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결단은 회사의 최고 주주가 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트위터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에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눈이 쏠렸다. 잭 도시는 트위터와 연결돼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산가치가 더 크고 이윤이 많은 기업은 스퀘어라는 회사이다. 트위터의 기업가치가 2019~2020년 기준 약 230억 달러(약 26조 원) 정도인데, 스퀘어의 자산가치는 약 550억 달러(약 58조 원)로 트위터의 두 배가 넘는다. 페이팔과 더불어 핀테크 산업을 이끄는 대장이라고 할 만큼 재무 혁신 산업에 영향력이 큰 기업이다.

스퀘어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은 소상공인에게 크레딧카드 결제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흔히 사용하던 크고 무거운 카드 처리 단말기 없이 아이폰에 끼워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파는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그 모양이 작은 정사각형이라서 회사 이름을 스퀘어(square: 정사각형)로 지었다 한다.

스퀘어는 벤처 모델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공감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모델은 2009년 잭 도시가 친구를 돕고자 한 데서 시작했다. 잭 도시의 오랜 친구인 짐 맥켄베는 유리 세공사로, 작은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만들

어 파는 일을 했다. 자신의 조그만 가게에 비용 투자가 큰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손님이 현금만 지불할 경우 그냥 가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친구의 말을 귀담아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것이 스퀘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퀘어는 당시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개통비나 월 회비를 요구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때만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카드 지불 처리를 이따금 하는 작은 가게에는 단말 같은 모델이라 하겠다.

또한 스퀘어는 하드웨어 회사가 서비스 디자인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단말기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매출, 손익 계산 및 고객관리 서비스를 단순하고 읽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회계와 재정 관리에 별 노하우가 없는 작은 가게의 주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스퀘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혁신적

서비스 디자인으로 전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해결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고객에게, 스퀘어가 가게 단말기에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용 조회를 통해 적절한 용자를 해준다. 용자 상황은 매일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갚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은행 대출 이자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 많으면 많이 갚고 적으면 적게 갚을 수 있게 하여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스퀘어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개발해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자도 작은 돈을 서로 빌리며 갚는 시스템을 통해 마켓 포지션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 또한 대형 기업들이 무시하는 마켓의 고충을 파악하고 반영해 새로운 서비스로 성장의 길을 찾는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성종(成宗) 명언 "너는 무슨 물건을 받고 이런 부탁을 하는가? 내가 은밀히 사람을 만나 관직을 준다면, 나라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제9대 왕. '경국대전'을 편찬해 조선의 통치방향과 이념을 제시했다. 자신을 키운 유모가 지인의 인사 청탁을 하자 그 가 한 말. 오늘 승하였다. 1457~1495.

☆ 고사성어 / 좌단(左袒) 찬성의 뜻을 표시하거나 한편이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 왼쪽 소매를 벗고 어깨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죽은 후 여후(呂后)가 권력을 쥐고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잡으려 하자 태위(太尉) 주발(周勃)이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 "여 씨를 위하는 사람은 오른쪽 소매를 벗고, 유 씨를 위하는 사람은 왼쪽 소매를 벗어라[爲呂氏右袒 爲劉氏左袒]." 장병들은 모두 왼쪽 소매를 벗어 유 씨 편을 들었다고 한다.

☆ 시사상식 / 극점사회(Summit Society) 갈수록 지역, 기업, 계층 등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사회를 일컫는 말. "일본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마스다 보고서'의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교수는 도쿄 같은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 고운 우리말 / 바투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또는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란 말.

☆ 유머 / 엄마의 남자 선택 기준 퇴근시간이 되면 엄마가 어김없이 "올 때 밥질 조심하고 낯선 남자가 불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라고 문자를 보내온다. 오늘은 "잘생겼으면?" 하고 답장을 보내자 엄마의 이어진 답문.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는 봐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안경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코로나 1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식당 사장의 말은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오랜만에 연락한 한 친구는 "요새 퇴근하고 쿠팡이츠(배달 알바) 땀다"고 했다. 야간 영업을 주로 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친구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월급이 줄어 지난달엔 평소의 3분의 1만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코로나로 인한 퇴직자나 폐

업자에겐 적은 월급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지 기능이 안 된다. 코로나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지 1년이 넘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코로나 블루(우울감)'로도 모자라 화가 난다는 '코로나 레드', 절망감이 든다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다. 오늘도

계속되는 누군가의 '고난의 행군'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는 게 우선이다. 1년에 걸친 방역 참여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지쳐 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이미 자리를 뚫는 지도 모른다. 공동체 의식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괜찮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혹여 운 좋게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피했다하더라도, 온전히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그나마 절반 이하로 줄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와 의료진 등 수많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결과다. 이런 희생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될 일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CEO

“재부 만들어 세금·일자리...사회에 보답”

〈財富〉

매년 중국 부호 랭킹을 발표하는 후룬 바이푸(胡潤百富)의 ‘2020년 신부호 500인’에서 알리바바의 마윈과 텡윈의 마화팅에 이어 부동산기업인 헝다(恒大)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쉬자인(許家印)이 1981억 위안(元)의 자산으로 3위의 자리에 올랐다.

“고난은 나의 가장 귀중한 자산”

쉬자인은 1958년 허난(河南)성 저우커우(周口)시 변두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 그가 태어난 지 일 년 만에 어머니가 폐혈증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벽돌 나르는 일이라도 구해 보려 했지만 일자리가 없었다. 당시 그의 희망은 농촌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고 국수를 먹어보는 것이었다. 그는 2년 동안 석탄과 사과를 시장에 내다 팔고 경비원 일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문화대혁명의 격변기가 막을 내리고 대학 시험이 부활되자 그는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여 1978년 우한(武漢)강철학원(현재 우한과학기술대학) 야금학과에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그는 금속재료 및 열처리를 전공하였다. 하지만 그의 수중에는 한 권의 책을 살

돈도 없었고 한 끼 식사를 사먹을 돈도 없었다. 국가가 매달 제공했던 14위안의 보조금에 의지해 간신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쉬자인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만약 국가의 대학시험 부활 정책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농촌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가 14위안의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것이며,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 나의 회사 헝다(恒大)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남을 위해 품을 팔던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1982년 철강회사에 입사하였다. 당시 직장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이 회사에 근무한 10년 동안 그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결과 1987년에는 정부 자금공급부가 수여하는 6개 부문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2년 회사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팔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상부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회사의 조사를 받고 결국 그는 사직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생면부지의 남부 도시 선전(深圳)에 내려가 일자리를 구했다. 처음엔 50페이지에 걸쳐 자기소개서를 내면서 돌아다녔지만, 그를 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 길어서 아무도 읽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기소개서를 두 페이지로 줄여 냈더니 다섯 곳의 회사에서 그를 원했다. 그중에서 선전중

다(中達)그룹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평사원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1994년 그는 광저우시의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여 ‘주다오화원(珠島花園)’이란 주택단지 건설과 영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면서 회사에 2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의 당시 월급은 고작 3000위안에 불과했다. 그는 그룹 회장을 만나 10만 위안의 연봉을 달라는 담판을 벌였지만 회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7년 만에 50배 성장한 부동산 기업

1996년 그는 헝다부동산(恒大地產)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렸다. 고작 7~8명

매입하여 ‘진비(金碧)화원’이라는 주택 단지를 추진했다. 이 주택이 완공되자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광저우 부동산 시장에서 그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고, 동시에 막대한 현금이 수중에 들어오면서 사업 운영은 순조롭게 풀렸다.

성장을 거듭한 헝다그룹은 자립한 지 3년 만인 1999년 광저우의 부동산기업 중 일약 7위에 랭크되었다. 1997년 20명도 채 되지 않던 직원 수도 2004년에 이르러 2000명을 넘게 되었다. 그의 사업 전략은 이제 규모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사업 영역도 광저우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2010년 쉬자인의 헝다그룹은 7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50배 성장한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성취해 내지 못했던 성과였다. 평생 ‘일에 미친’ 그는 여전히 단 하루의 휴식일도 없이 사업에 매진하였다.

10년 연속 자선 1위

어릴 적부터 간난신고를 겪어온 쉬자인은 “민생을 본(本)으로 하고, 산업으로 보국(報國)한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그는 2011년 3억9000만 위안의 기부 자선으로 중국 자선사업 1위에 오른 이래 2020년 30억 위안으로 10년

연속 수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업을 더욱 크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재부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를 위해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 이것이 사회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이다”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은 100여 차례에 걸쳐 총 146억 위안에 이르고,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2300억 위안이며, 그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260만 개다.

프로축구 광저우 인수 아시아 강자로

2010년에는 당시 저주기 게임을 하여 이른바 ‘가짜축구’ 혐의로 중징계에 처해 있던 프로축구 광저우팀을 1억 위안에 사들여 광저우 헝다축구클럽을 출범시켰다. 이후 광저우 헝다축구클럽은 2013년 중국 축구 사상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등 명실공히 아시아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후룬바이푸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부동산업계 랭킹에서 쉬자인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의 부동산업 자산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부동산업에 멈추지 않고 있다. 2016년 금융 분야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과 영국 굴지의 자동차회사를 사들였고, Hofer 및 FEV 등 독일의 유명 자동차회사와 제휴하여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나서고 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15년 내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 1위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이 제12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린 2017년 3월 9일 베이징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쉬자인(왼쪽) 헝다그룹 회장과 마윈 알리바바 그룹 설립자가 2014년 6월 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전략적 축구 협력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당시 12억 위안을 투자해 프로축구 광저우의 헝다 측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마윈은 쉬자인과 함께 중국 최대 프로축구팀인 광저우의 공동구단주가 됐다. 신화뉴스

의 직원에 자본은 거의 없었고 회사 물건이라야 손수레 외엔 없었다. 그러나 큰 성공을 거뒀던 ‘주다오화원’의 경험으로 그는 이미 부동산업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운영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부동산 기업들이 규모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여 오히려 ‘작은 면적, 낮은 가격’의 사업 전략을 구사하였다. 자신의 계획을 은행에 잘 설득하여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고, 광저우 외곽의 농약공장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경제·통상, 외교안보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질서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경제·안보·외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파격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미국 구조계획’으로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을 추가 지급하고, 실업급여 인상 및 혜택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내놓았다. 가계 지원에 집중해 경제·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다. 인프라 투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6.6%까지 높아질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무역협정 철수, 고율 관세 부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냉각됐던 글로벌 무역도 개선될 것이라 기대가 많다.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보호무역 완화와 다자무역질서 회복으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권에서 한국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은 0.1~0.4%p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큰 리스크다. 트럼프 때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패권전략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이든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덩핑,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보조금 등 나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이 서둘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KDI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미래기술의 자국 중심 가치사슬 강화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동아시아 가치사슬에서 장래 중국보다 아세안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우려점도 적지 않다.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에 대해서는 몹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당분간 북미 관계는 악화할 공산이 크다. 북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 문제 해결이 갈수록 멀어지는 데도 북한과의 협력에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 딜레마적 상황이다.

결국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 요인도 많다. 미국의 바이든 시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안보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으로 기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의 미래가 좌우되는 일이다.

진료실 풍경 소변 거품이 불안하신 분들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루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된다는 분이 오셨다. 최근 계속 소변을 누면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왜 하필 ‘오늘’ 오셨는지 하는 것이다.

‘왜 오늘 오신 거지? 당뇨에 걸리면 신장기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단백뇨로 드러난다는 뉴스를 어제 보셨나? 지인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으셨나?’ 건강에 관련한 무슨 기사나 예능이 뜬 건 아닌지 찾아보는 것도 매일의 일과다. 건강백세를 염원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소변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나면, 당분간 소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더 자주 오시곤 하니까.

그분은 걱정이 컸다. 우선 가장 간단한 소변검사인 스틱검사를 해보았다. 아주 깨끗했다. 물론 미세한 단백뇨는 일반적인 스틱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다른 과거력이 특별히 없는 분이라 단백뇨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다. 소변검사 결과를 잘 설명해 드리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걱정과 불안이 잠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변을 누면 어떨 땐 거품이 많이 난다. 또 어떨 땐 별로 거품이 없다. 사실 소변의 거품은 성분에 의해 좌우될 때도 있지만, 소변이 배출되는 속도에 기인한 것일 때가 더 많다. 시원하게 힘차게 짹-누면

소변 배출 속도가 높아 거품이 보글보글 많이 올라오는 것이다.

나는 뜬금없이 그분께 물었다. “맥주 드시나요?”

“맥주? 맥주 먹지요. 많이는 안 마시요. 갑자기 맥주는 왜요?”

“맥주 브랜드에 따라 거품이 많이 나는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맥주라도 잔에 따르는 속도에 따라서 거품이 날 때도 있고, 거품이 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맥주 따르는 거 보신 적 있지요? 소변도 사실 마찬가지로요.”

“아! 그리고 보니 제가 소변에 거품이 나길래 걱정이 되어서 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변을 일부러 힘써서 세계 뵈어요. 그래서 거품이 점점 더 났던 거군요!” “그런 거 같네요. 힘써서 세계 누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소변을 누 보시고 거품 양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소변 세계 누는 거 좋지 않아요. 방광에 압력을 너무 많이 주면 신장 쪽으로 소변이 역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하하하하, 진료실에서 이렇게 맥주에 빗대어 설명을 해주시다니...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맥주 마시는 얘기하는 거 신선하네요.”

그분은 눈을 찡긍하며 웃음을 보이고는 진료실을 나가셨다. 그 여유로운 모습에서 한결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나저나 나도 참, 하필이면 맥주로 비유하더니.

추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정의학과 전문의

Positive Energy

2021 NEXO 출시



수소전기차 NEXO(넥쏘)
 주행 중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에너지와 물만을 발생시키며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궁극의 친환경차입니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17인치야복합 962km/kg(도심 99.5km/kg, 고속 92.6km/kg) [CO2배출량 0g/km] 공차중량 1820kg ■ 19인치야복합 937km/kg(도심 98.9km/kg, 고속 88.0km/kg) [CO2배출량 0g/km] 공차중량 1885kg ※연비 및 항속거리는 도로상황, 운전행위, 차량상태, 정비상태,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상태에 따라 완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항속거리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 시간은 수소충전소의 충전압력 및 외기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제해폭작용 후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520만원 한도이며, 판매조건 및 선택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차량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이 나 관련 법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달별 자체 환가 및 가격은 해당 일의 가격표를 참고하십시오. ※상기 예약에는 기간 및 혜택은 당사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속주행을 합니다. ※한대지동차는 지점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